

최종보고서 제출서

“소상공인 거시환경 분석(소상공인 중요성 및 역할 분석)”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별첨 1. 최종보고서 5부
2. 최종보고서 CD 1장. 끝.

2016 년 8 월 26 일

주관기관 : 사단법인 한국공정거래학회 (직인)

과업책임자 : 이 정 환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제 출 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소상공인 거시환경 분석(소상공인 중요성 및 역할 분석)”에 관한 용역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 8. 26.

주관기관 : 사단법인 한국공정거래학회

과업책임자 : 이 정 환

요 약 문

소상공인 거시환경분석 (소상공인 중요성 및 역할 분석)

소상공인 현황 분석자료 및 분석항목

- 본 연구의 소상공인의 거시환경분석을 위한 주요 자료는 통계청 전국사업체 실태조사(2007~2014년)를 활용함
- 분석항목은 전체 소상공인 대상 연도별 추세 분석과 별도로 소상공인-소공인 분석, 소상공인 세부 업종별 분석, 지역별 분석을 추가함

○ 연도별 소상공인 규모 및 비중 추이

- 우리나라의 전체 사업체수는 2007년 2,976,646개에서 2014년 3,545,473개로 연평균 2.53% 증가한 반면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2007년 2,616,222개에서 2014년 3,063,001개로 연평균 1.92% 증가함
-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전체 사업체는 2007년 12,612,692명에서 2014년 15,962,745명으로 연평균 3.42% 증가한 반면 소상공인 종사자는 2007년 5,102,578명에서 2014년 6,046,357명으로 2.45% 증가함
- 소상공인의 전체 산업 대비 비중은 사업체수 기준으로 2007년 87.89%에서 2014년 86.39%으로 1.50% 소폭 감소한 반면,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2007년 40.46%에서 2014년 37.88%로 2.58% 대폭 감소함

○ 지역별 전체 사업체 대비 소상공인 사업체 비중

- 2014년 기준으로 모든 지역에서 전체 사업체 대비 소상공인 사업체 비중이 80%를 초과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90.24%), 경북(89.83%), 전북(89.62%)의 순으로 소상공인 사업체 비중이 높은 반면 서울(83.98%), 세종(84.27%)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상공인 비중이 낮음
- 2007년 대비 2014년 전국의 전체 사업체 대비 소상공인 사업체 비

1.50% 감소한 바, 특히 부산(-1.89%), 서울(-1.82%) 등 대도시의
소상공인 사업체 비중 감소가 두드러짐

○ 지역별 전체 종사자 대비 소상공인 종사자 비중

- 2014년 기준 전체 종사자 대비 소상공인 종사자 비중은 강원(51.63%), 제주(48.49%), 전남(47.13%)의 순으로 높은 반면, 울산(28.12%), 서울(31.90%), 세종(33.79%)는 그 비중이 낮음
- 2007년 대비 2014년 전국의 전체 종사자 대비 소상공인 종사자 비중은 2.58% 감소한 바, 특히 전남(-4.58%), 대전(-4.14%), 제주(-4.10%) 지역의 소상공인 종사자 비중 감소가 두드러짐

○ 소상공인 업종별 분포 및 비중

- 2014년 기준 사업체수 상위 5개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28.60%), 숙박 및 음식점업(20.11%), 운수업(11.89%), 제조업(10.63%), 협회 및 단체, 소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9.13%)
- 2014년 종사자수 기준 상위 5개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26.24%), 숙박 및 음식점업(21.29%), 제조업(16.97%), 운수업(7.3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6.60%)
- 2007년 대비 2014년 업종별 사업체 수 비중은 건설업(+0.7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0.42%), 제조업(+0.40%)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도매 및 소매업(-0.77%), 숙박 및 음식점업(-0.5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0.50%)은 감소함

○ 업종별 전체 사업체 대비 소상공인 비중

- 업종내 전체 사업체수 기준으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기준 운수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순이며, 동 업종은 종사자 수에서도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소상공인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특히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규모면에서 타 업종에 비해 큰 소상공인 대표 업종이라 할 수 있음

소공인과 소상공 비교 분석

- 소상공인은 크게 소공인과 소상공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바, 두 유형의 소상공인은 각기 다른 산업특성을 지니고 있음
- 소상공인 내에서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으로 사업체 수 측면에서 소공인 10.63%, 소상공인 85.71%, 기타 3.22%로 구성되며, 종사자수 측면에서는 소공인 16.97%, 소상공인 77.07%, 기타 5.97%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 바, 소상공인이 소공인 및 기타 소상공인보다 절대적인 양 측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
- 2007년 대비 2014년 사업체수는 소상공인은 다른 두 유형에 비해서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소공인과 기타 유형은 소폭 증가함
- 평균 종사자수는 동 기간 소공인이 평균 0.11명 증가한 반면 소상공인은 큰 변화가 없었고, 기타 소상공인은 0.12명이 감소함

○ 소상공인 업종별 경영성과 분석 자료

- 경영성과 분석을 위해 가용한 자료 중 대표 업종이라 할 수 있는 제조업에서의 소상공인 경영성과를 전체 제조업과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경영성과와 비교함

○ 업체 규모별 생산액과 비중 비교

-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체의 생산액은 2007년 9,890,622억원에서 2014년 15,483,633억원으로 동 기간 약 1.57배 증가하였고, 이를 종사자 기준 3개 집단(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 2007년 대비 2014년 대기업(300인 이상)과 중소기업(300인 미만)의 생산액은 각각 1.58배와 1.55배 증가한 반면 소상공인(5~9인)의 생산액은 1.48배 증가에 그침
- 전체 제조업체 생산액 대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산액 비중은 2007년 각각 48.7%와 4.6%였으나 2014년 48.3%와 4.3%로 감소함

○ 업체 규모별 생산성 비교

-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체의 생산성(1인당 생산액)은 2007년 76,640만 원에서 2014년 108,384만원으로 동 기간 동안 약 1.37배 증가하였고, 3개 규모집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 2014 기준 대기업(300인 이상)과 중소기업(300인 미만)의 생산성은 각각 108,384만원과 29,577만원으로 소상공인(5~9인) 생산성(17,376만원)의 약 6.24배와 1.74배에 달하는 바, 소상공인의 생산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수준임
- 2007년 대비 2014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각각 1.41배와 1.35배 증가한 반면 소상공인의 생산성은 1.42배 증가한 바,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다소 증가폭은 높음

○ 업체 규모별 출하액 비교

-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체의 출하액은 2007년 9,850,515억원에서 2014년 15,460,961억원으로 동 기간 동안 약 1.57배 증가함
- 2007년 대비 2014년 대기업(300인 이상)과 중소기업(300인 미만)의 출하액은 각각 1.58배와 1.56배 증가한 반면 소상공인(5~9인)의 출하액은 1.49배 증가에 그쳐 생산액 추세와 유사한 경향을 보임

○ 업체 규모별 부가가치 비교

-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체의 부가가치는 2007년 3,449,638억원에서 2014년 5,080,850억원으로 동 기간 동안 약 1.47배 증가함
- 2007년 대비 2014년 대기업(300인 이상)과 중소기업(300인 미만)의 부가가치는 각각 1.46배와 1.49배 증가한 반면 소상공인(5~9인)의 부가가치는 1.46배가 증가한 바, 집단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제조업 1인당 부가가치 비교

-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체의 1인당 부가가치는 2007년 12,054만원에서 2014년 15,438만원으로 동 기간 동안 약 1.29배 증가함
- 2007년 대비 2014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각각 1.31배와 1.29배 증가한 반면 소상공인의 부가가치는 1.40배 증가한 바,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다소 증가폭은 높음

○ 소상공인의 국민경제적 비중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상공인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측면에서 막중함을 알 수 있는 바, 2014년 기

소상공인의 사업체수는 전체사업체수 대비 약 86%에 달하며,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38%에 달함

- 소상공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생활형 서비스업의 경우 소상공인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소상공인의 몰락은 개인이나 가정을 넘어 지역경제와 서민경제 전반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며, 특히 소상공인의 폐업은 빈곤층의 확대와 실업의 양산 등으로 인해 재정지출 및 여타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수반함

○ 경기사이클과 소상공인 정책

- 최근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소비심리의 저하와 더불어 소상공인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바 경제환경의 악화로 인한 경기위축 국면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대상은 상대적으로 경영환경이 열악한 소상공인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최근 조선, 해운업 등의 구조조정 사례에서 보듯이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반대로 경기회복 국면에서도 빠른 혜택을 보기 어려운 대상 역시 소상공인이라 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전체 GDP나 경제전반의 경기 동향이 소상공인의 생산과 경기에 선행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 국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서민경제의 활성화 없이는 소비나 전체 GDP가 증가할 수 없다는 점에서 GDP와 소상공인 생산은 선행과 후행이 상호작용하는 순환적인 구조라 할 수 있음
- 정부는 앞서 살펴본 소상공인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중요성과 경기사이클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업종별 특성에 부합하는 스마트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선제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거시환경 분석

[소상공인 중요성 및 역할 분석]

목 차

1. 소상공인 정의와 범위	1
2. 소상공인 규모와 비중 변화 추세 분석	3
3. 소상공인 업종 및 유형별 비교 분석.....	13
4. 소상공인 경영성과 비교 분석.....	28
5. 소상공인의 중요성과 경기사이클.....	35
<부록> 소상공인 성공사례	37

2016. 8. 26.

사단법인 한국공정거래학회

소상공인 거시환경분석

(소상공인 중요성 및 역할 분석)

1. 소상공인의 정의와 범위

소상공인의 정의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서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분류되며, 소상공인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구분된다.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큰 경우 대기업으로 분류됨
- 중소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분류는 상시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매출액, 자산총액 등은 고려되지 않음
- 2015년부터 중소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과 그 외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구분함¹⁾
- 소상공인, 소기업 및 중소기업의 분류는 산업별 다르게 정의하고 있음²⁾
- 전국사업체실태조사에 포함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은 소상공인 분류기준에서 빠져 있으나, 답변 기업의 유형과 사회적 기업 등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소상공인의 분류기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소상공인 현황 분석자료 및 분석항목

- 본 연구의 소상공인의 거시환경분석을 위한 자료는 주로 통계청 전국사업체 실태조사를 활용하며,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함³⁾
- 현황분석에서는 산업별 종사자수 범위에서 영리여부에 따라 일부 업종 및 사업체를 통계작성 분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경영

1) 중소기업중앙회 각 연도별 중소기업현황 자료를 준용함. 단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는 200명 기준의 조사자료가 없어서 중소기업의 구분이 불가능함
2)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http://stat2.smba.go.kr>)
3)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http://kostat.go.kr/survey/saup/index.action>)

형태가 개인사업체 및 상법상 회사법인 이외의 사업체는 통계작성에서 제외하였음

- 기업규모 현황과 소상공인 세부 분석을 실시함
 - : 기업규모 현황은 전체 사업체를 기준으로 연도별, 업종별, 지역별로 분석함
 - : 소상공인 세부 분석은 소상공인의 업종별 비중, 종사자 수를 분석하고, 소상공인과 소공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산업별 분류 분류기준 >

대분류		중분류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A	농업 및 어업	01~03	1 ~ 4인	1 ~ 9인	10 ~ 199인	200인 이상
B	광업	05~08	1 ~ 9인	1 ~ 49인	50 ~ 299인	300인 이상
C	제조업	10~33	1 ~ 9인	1 ~ 49인	50 ~ 299인	300인 이상
D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35~36	1 ~ 4인	1 ~ 9인	10 ~ 199인	200인 이상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7~39	1 ~ 4인	1 ~ 9인	10 ~ 199인	100인 이상
F	건설업	41~42	1 ~ 9인	1 ~ 49인	50 ~ 299인	300인 이상
G	도매 및 소매업	45~47	1 ~ 4인	1 ~ 9인	10 ~ 199인	200인 이상
H	운수업	49~52	1 ~ 4인	1 ~ 49인	50 ~ 299인	300인 이상
I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1 ~ 4인	1 ~ 9인	10 ~ 199인	200인 이상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8~63	1 ~ 4인	1 ~ 9인	10 ~ 299인	300인 이상
K	금융 및 보험업	64~66	1 ~ 4인	1 ~ 9인	10 ~ 199인	200인 이상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69	1 ~ 4인	1 ~ 9인	10 ~ 49인	50인 이상
M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73	1 ~ 4인	1 ~ 9인	10 ~ 199인	200인 이상
N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75	1 ~ 4인	1 ~ 9인	10 ~ 299인	300인 이상
P	교육서비스업	85	1 ~ 4인	1 ~ 9인	10 ~ 99인	100인 이상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87	1 ~ 4인	1 ~ 9인	10 ~ 299인	300인 이상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91	1 ~ 4인	1 ~ 9인	10 ~ 299인	200인 이상
S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5~96	1 ~ 4인	1 ~ 9인	10 ~ 99인	100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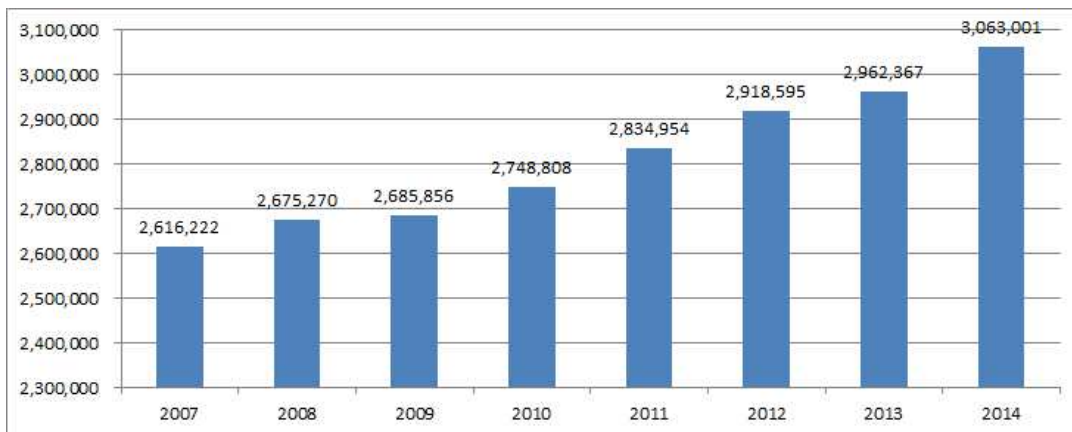
2. 소상공인 규모와 비중 변화 추세 분석

연도별 소상공인 규모 추이

- 우리나라의 전체 사업체수는 2007년 2,976,646개에서 2014년 3,545,473개로 연평균 2.53% 증가한 반면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2007년 2,616,222개에서 2014년 3,063,001개로 연평균 1.92% 증가한 바, 소상공인 사업체가 전체 사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을 보임
-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전체 사업체는 2007년 12,612,692명에서 2014년 15,962,745명으로 연평균 3.42% 증가한 반면 소상공인 종사자는 2007년 5,102,578명에서 2014년 6,046,357명으로 2.45% 증가한 바, 종사자수 기준으로도 소상공인이 전체 사업체에 비해 성장률이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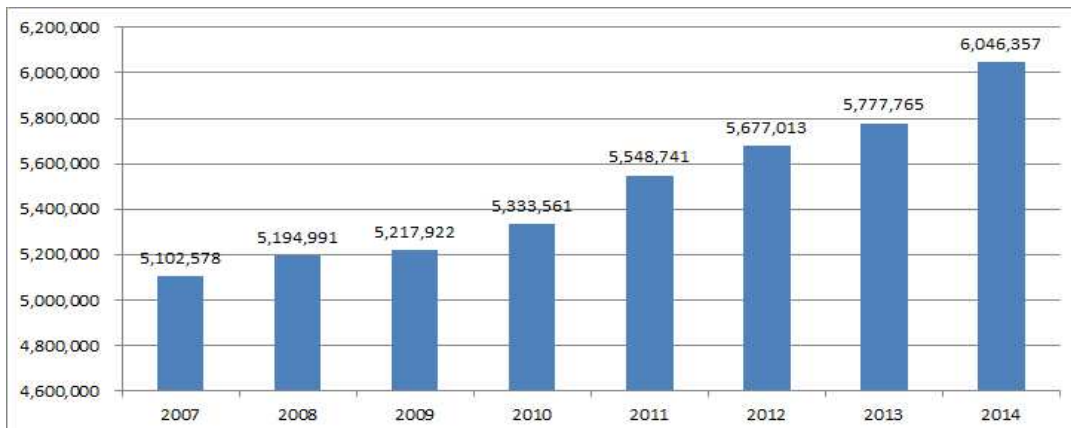
< 사업체수 추이>

: 개



<소상공인 종사자수 추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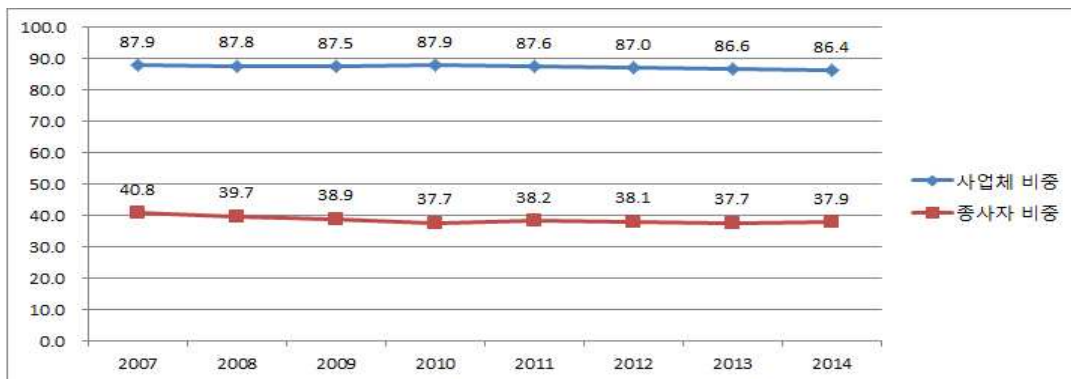


전체 사업체 대비 소상공인 비중 변화 추이

- 소상공인 사업체와 종사자의 수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으로 2007년 87.89%에서 2014년 86.39%으로 1.50% 소폭 감소한 반면,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2007년 40.46%에서 2014년 37.88%로 2.58% 대폭 감소한 바, 사업체수에 비해 종사자수 비중의 감소폭이 더욱 크게 나타남
-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수는 전산업은 2007년 4.24명에서 2014년 4.50명으로 8년간 0.26명이 증가하였지만, 소상공인의 경우 2007년 1.95명에서 2014년 1.97명으로 0.02명으로 소폭 증가한 바, 중소기업 및 대기업 대비 소상공인의 사업체당 종사자수는 상대적으로 감소함

< 대비 소상공인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비중 추이>

: %



<사업체당 종사자수 추이 비교>

단위: 명



< 전체사업체 및 소상공인 추이 >

년도	항목	전체사업체		소상공인		전체사업체와 소상공인 비교	
		개/명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수 (A)	개/명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수 (B)	전체사업체 대비 소상공인 비율 (%)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수 격차 (A-B)
2007 년	사업체수	2,976,646	4.24	2,616,222	1.95	87.9	2.29
	종사자수	12,616,692		5,102,578		40.46	
2008 년	사업체수	3,046,958	4.29	2,675,270	1.94	87.8	2.35
	종사자수	13,070,424		5,194,991		39.75	
2009 년	사업체수	3,069,400	4.37	2,685,856	1.94	87.50	2.42
	종사자수	13,398,497		5,217,922		38.94	
2010 년	사업체수	3,125,457	4.52	2,748,808	1.94	87.95	2.58
	종사자수	14,135,234		5,333,561		37.73	
2011 년	사업체수	3,234,687	4.49	2,834,954	1.96	87.64	2.54
	종사자수	14,534,230		5,548,741		38.18	
2012 년	사업체수	3,354,320	4.44	2,918,595	1.95	87.01	2.49
	종사자수	14,891,162		5,677,013		38.12	
2013 년	사업체수	3,418,993	4.49	2,962,367	1.95	86.64	2.54
	종사자수	15,344,860		5,777,765		37.65	
2014 년	사업체수	3,545,473	4.50	3,063,001	1.97	86.39	2.53
	종사자수	15,962,745		6,046,357		37.88	

지역별 전체 사업체 대비 소상공인 사업체 비중

- 2014년 기준 전국 전체 사업체 대비 소상공인 사업체 비중은 평균 86.39%로, 모든 광역지역에 걸쳐 전체 사업체 대비 소상공인 사업체 비중은 80%를 초과하고 있음

- 여타 지역 대비 강원지역의 소상공인 사업체 비중이 90.24%로 가장 높은 가운데, 다음으로 경북(89.83%), 전북(89.62%)의 순으로 지역별 소상공인 사업체 비중이 높은 반면, 소상공인 사업체 비중이 낮은 지역으로는 서울(83.98%), 세종(84.27%)인 바,⁴⁾ 도시화 및 공업화가 진행된 지역일수록 상대적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사업체 비율이 낮음
- 2007년 대비 2014년 전국의 전체 사업체 대비 소상공인 사업체 비중은 1.50% 감소한 바, 특히 부산(-1.89%), 서울(-1.82%) 등 대도시의 소상공인 사업체 비중 감소가 두드러짐

○ 지역별 전체 종사자 대비 소상공인 종사자 비중

- 2014년 기준 전체 종사자 대비 소상공인 종사자 비중은 전국 평균 37.88%로 지역별로는 강원(51.63%), 제주(48.49%), 전남(47.13%)의 순으로 소상공인 종사자 비중이 높은 반면, 울산(28.12%), 서울(31.90%), 세종(33.79%)는 그 비중이 낮음
- 2007년 대비 2014년 전국의 전체 종사자 대비 소상공인 종사자 비중은 2.58% 감소한 바, 특히 전남(-4.58%), 대전(-4.14%), 제주(-4.10%) 지역의 소상공인 종사자 비중 감소가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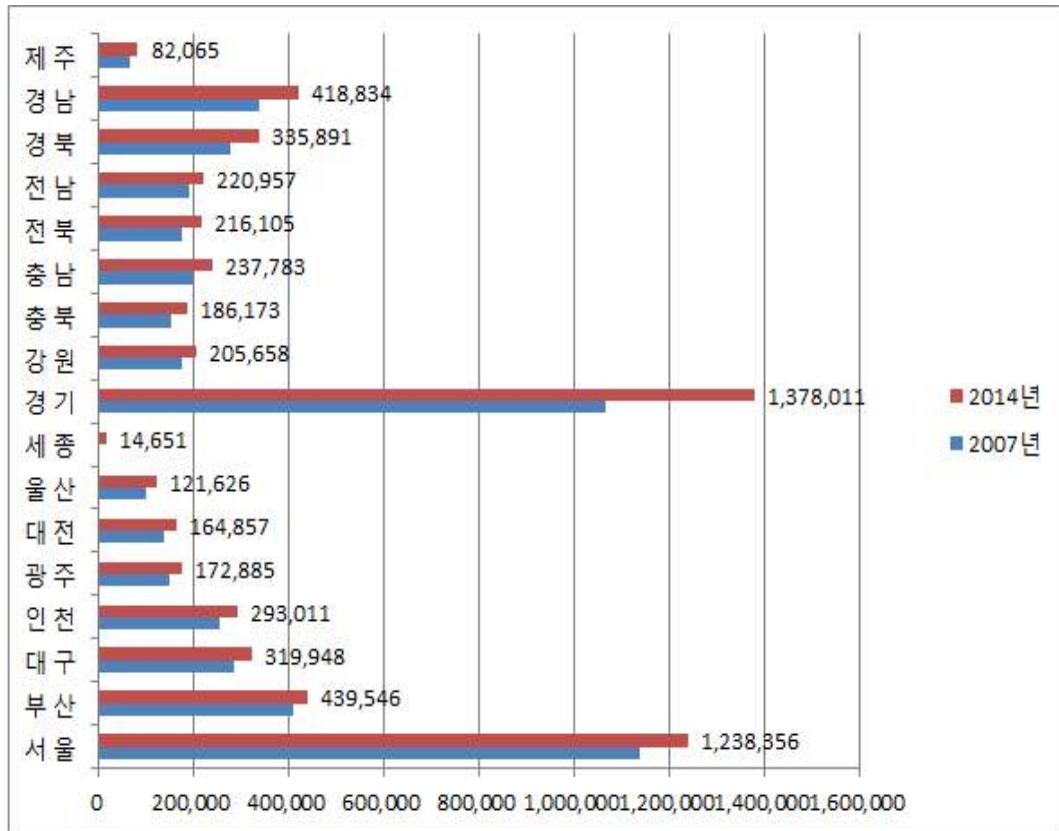
○ 지역별 소상공인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수

- 2014년 소상공인 사업체당 종사자수는 평균 1.97명으로 전국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경기도가 2.15명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대전과 전북은 1.87명으로 가장 영세한 지역으로 분류됨
- 2007년 대비 2014년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0.02명 소폭 증가하였으며, 서울(-0.04명)과 인천(-0.02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사업체당 종사자수가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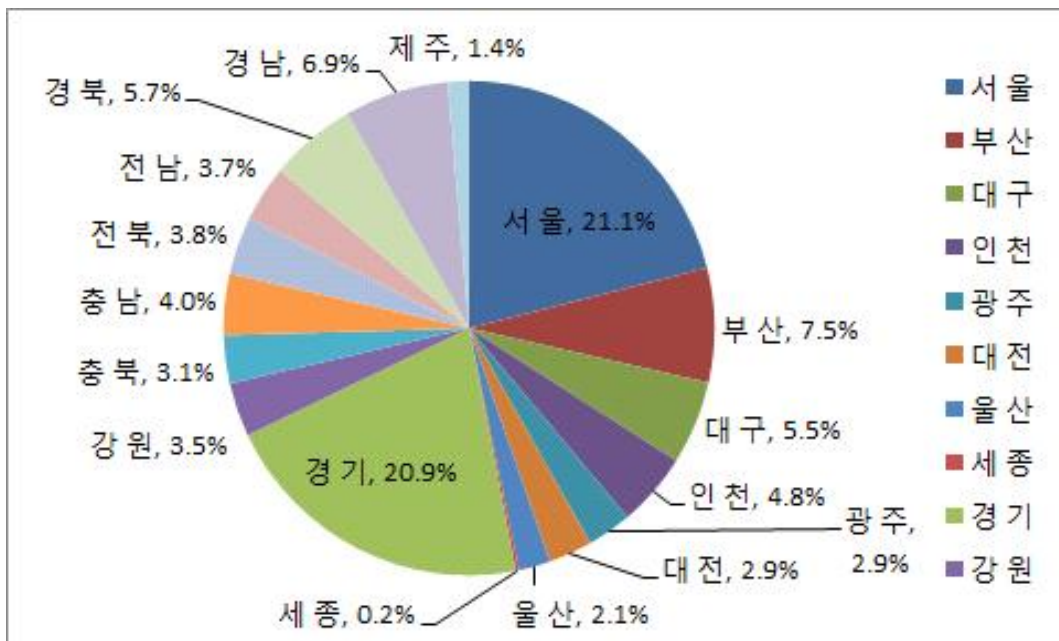
4) 행정수도로 최근 신설된 세종은 해석에서 제외함

< 소상공인 사업체수 >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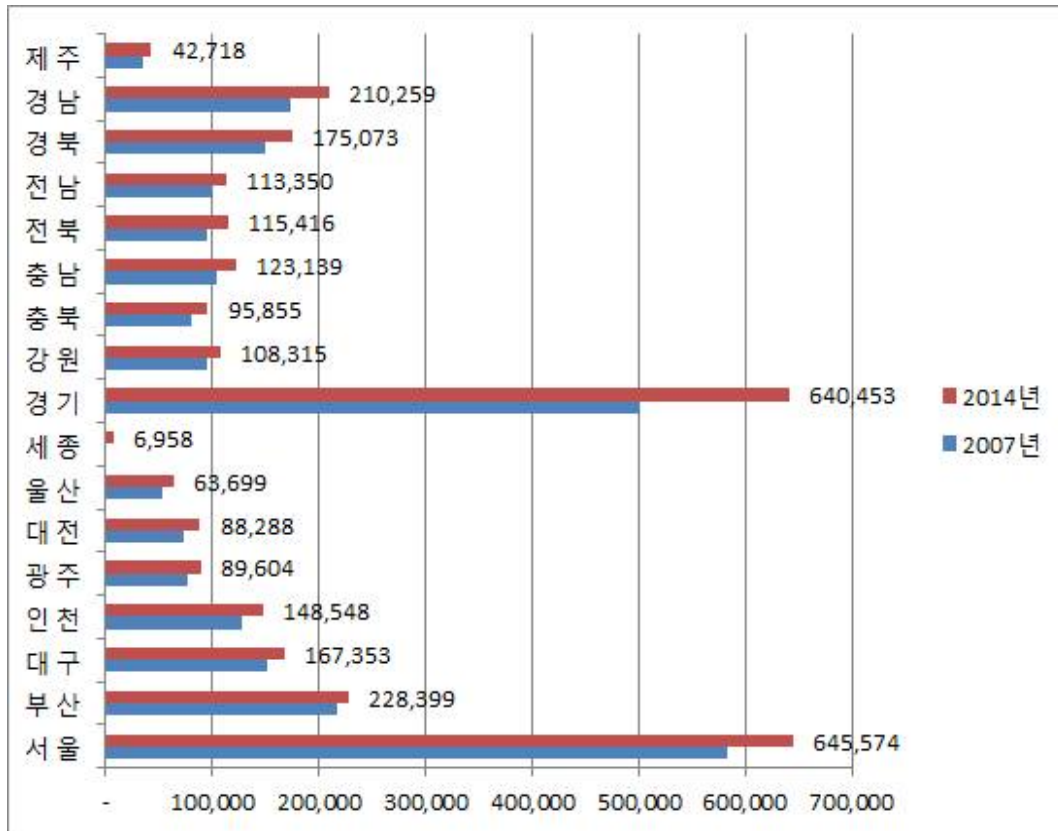


<전국 대비 지역별 소상공인 사업체수 비중: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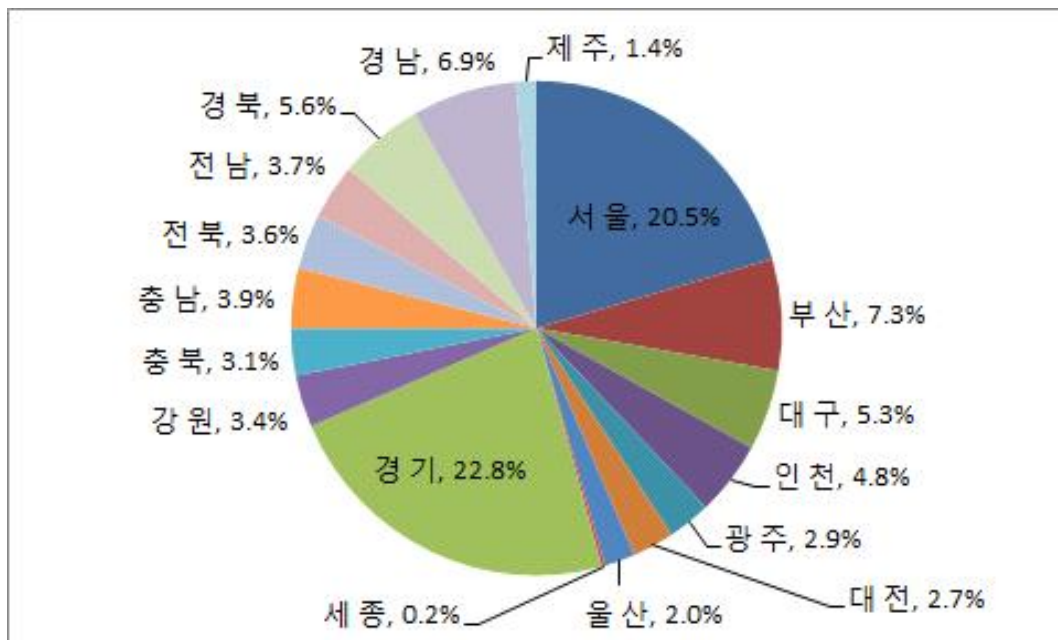


< 소상공인 종사자수 >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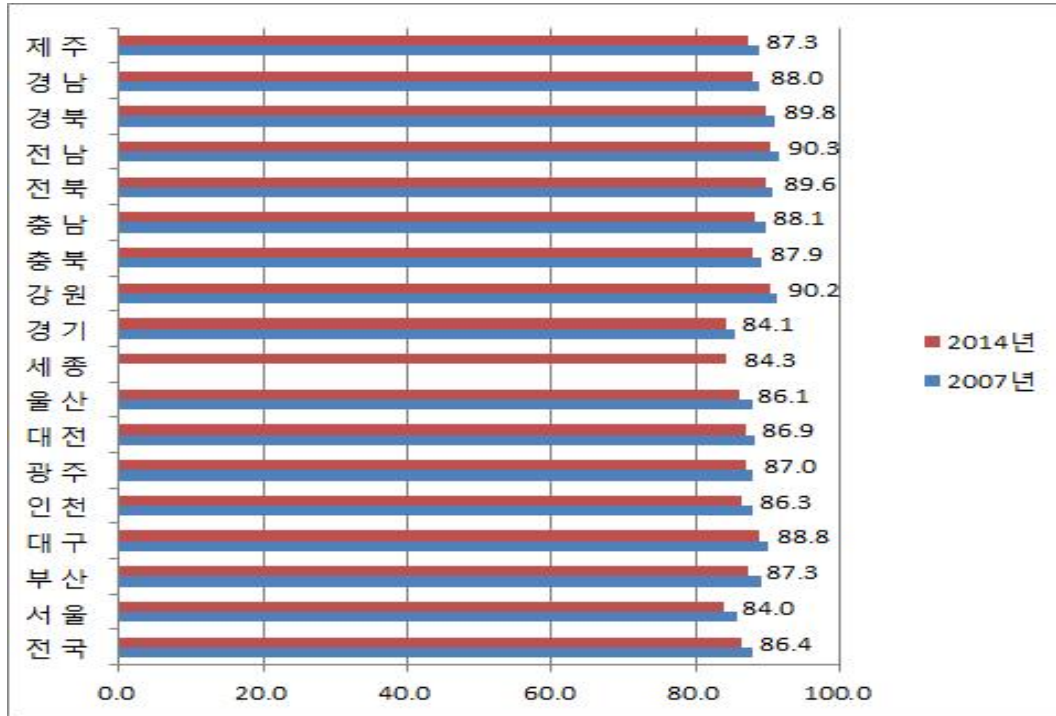


<전국 대비 지역별 소상공인 종사자수 비중: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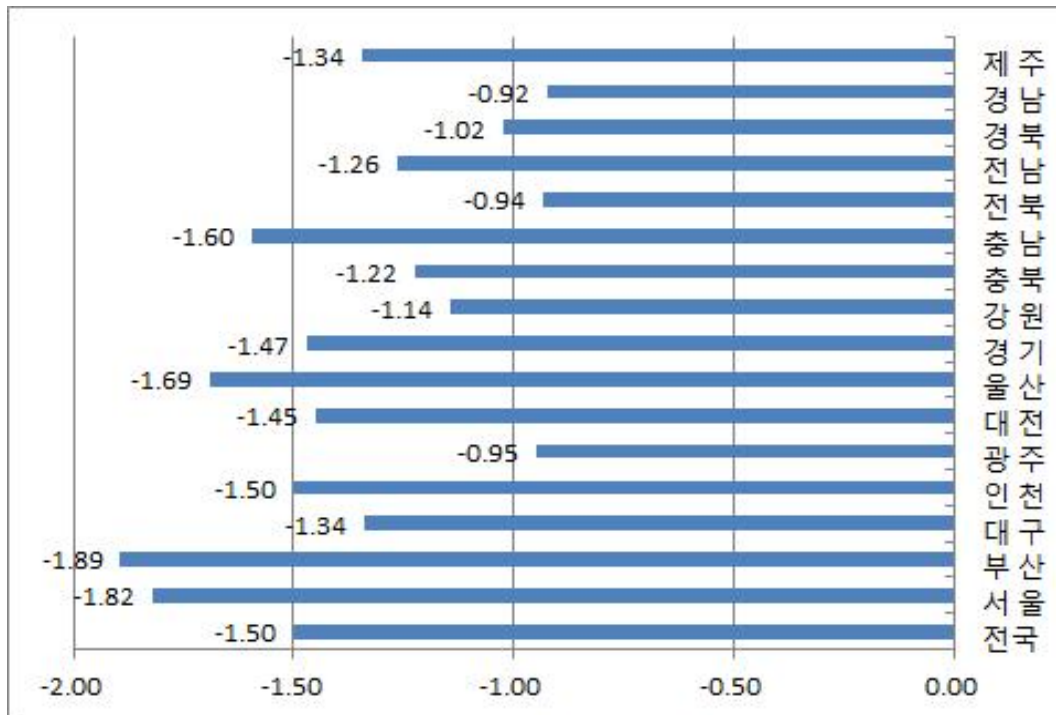
< 전체 사업체수 대비 소상공인 사업체수 비중>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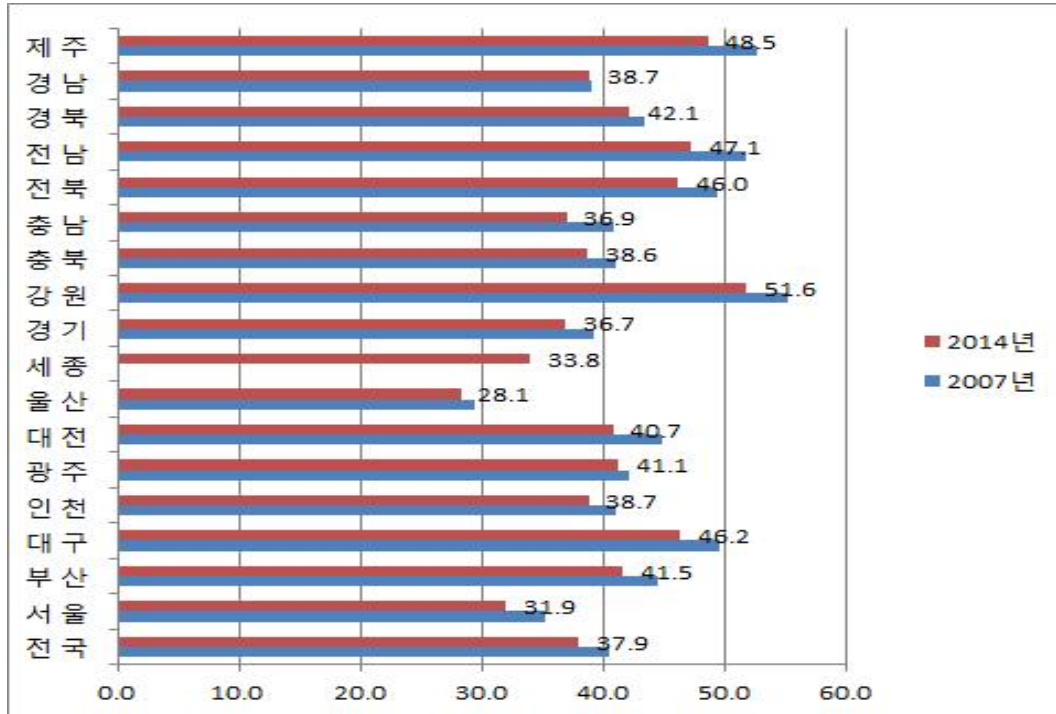
<지역별 전체 사업체수 대비 소상공인 사업체수 비중 변화: 2007년 대비 2014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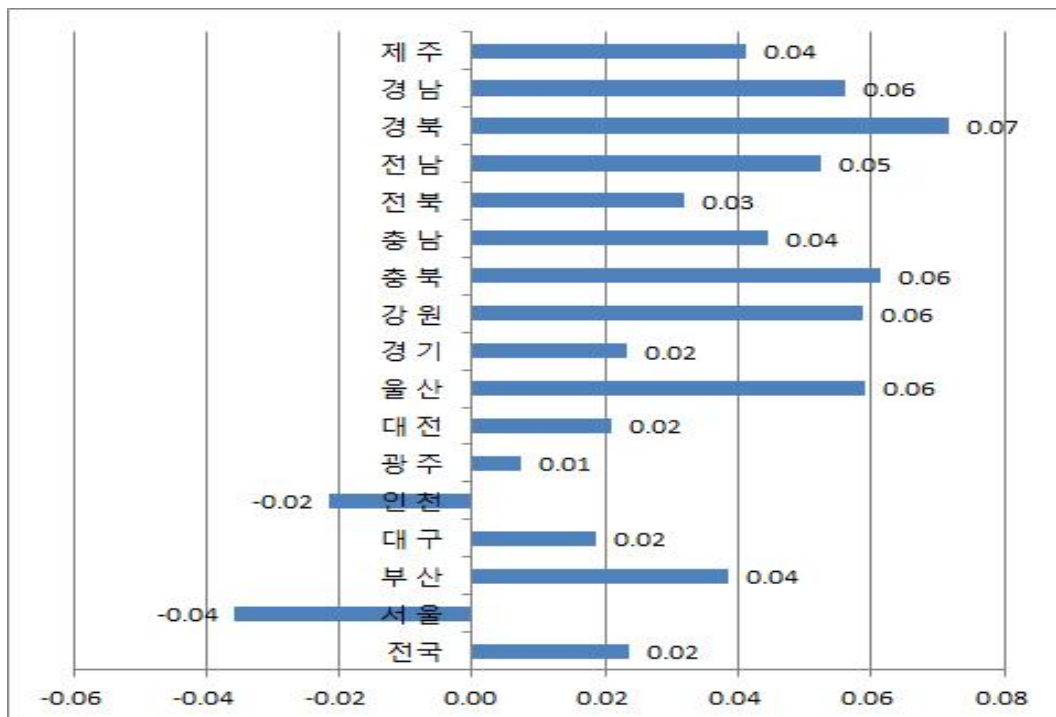
< 전체 종사자수 대비 소상공인 종사자수 비중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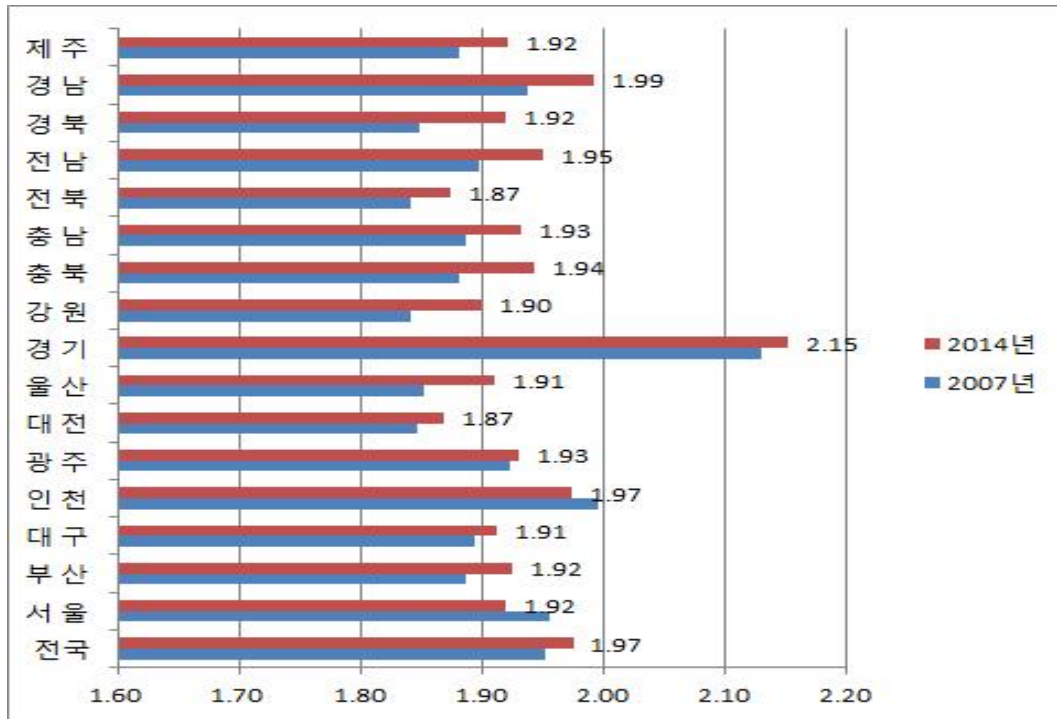
<지역별 전체 사업체수 대비 소상공인 사업체수 비중 변화: 2007년 대비 2014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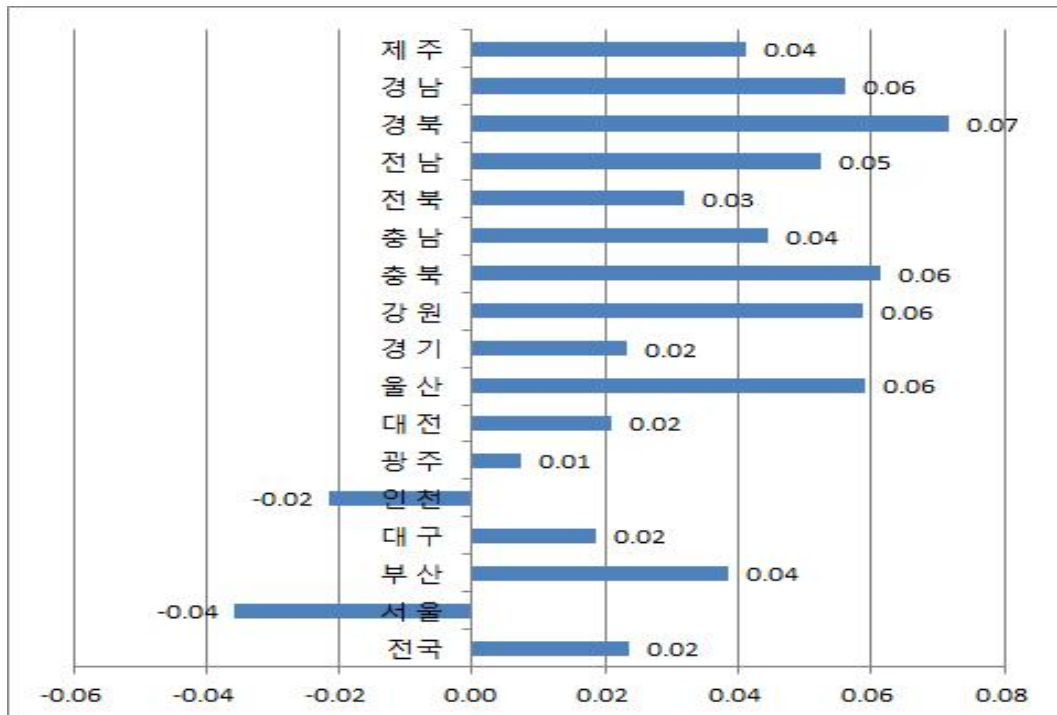
< 소상공인 사업체당 종사자수 >

: 명



<지역별 소상공인 사업체당 종사자수 변화: 2007년 대비 2014년>

단위: 명



< 소상공인 기업규모 비교 >

행정구역	항목	2007년				2014년				2007년 대비 2014년 변화	
		전체사업체 (개/명)	소상공인 (개/명)	전체사업체 대비 소상공인 비율 (%)	소상공인 사업체 당사자 수 (명)	전체사업체 (개/명)	소상공인 (개/명)	전체사업체 대비 소상공인 비율 (%)	소상공인 사업체 당사자 수 (명)	전체사업체 대비 소상공인 비율 (%)	소상공인 사업체 당사자 수 (명)
전 국	사업체수	2,976,646	2,616,222	87.89		3,545,473	3,063,001	86.39		-1.50	-
	종사자수	12612692	5,102,578	40.46	1.95	15,962,745	6,046,357	37.88	1.97	-2.58	0.02
서 울	사업체수	678,631	582,257	85.80		768,725	645,574	83.98		-1.82	-
	종사자수	3244817	1,137,665	35.06	1.95	3,881,556	1,238,356	31.90	1.92	-3.16	-0.04
부 산	사업체수	243,319	217,031	89.20		261,617	228,399	87.30		-1.89	-
	종사자수	922,914	409,279	44.35	1.89	1,060,266	439,546	41.46	1.92	-2.89	0.04
대 구	사업체수	167,216	150,707	90.13		188,483	167,353	88.79		-1.34	-
	종사자수	576,982	285,298	49.45	1.89	692,074	319,948	46.23	1.91	-3.22	0.02
인 천	사업체수	145,441	127,688	87.79		172,139	148,548	86.30		-1.50	-
	종사자수	621,589	254,593	40.96	1.99	757,944	293,011	38.66	1.97	-2.30	-0.02
광 주	사업체수	88,298	77,697	87.99		102,938	89,604	87.05		-0.95	-
	종사자수	354,872	149,346	42.08	1.92	420,858	172,885	41.08	1.93	-1.01	0.01
대 전	사업체수	83,059	73,341	88.30		101,653	88,288	86.85		-1.45	-
	종사자수	302,155	135,416	44.82	1.85	405,208	164,857	40.68	1.87	-4.13	0.02
울 산	사업체수	61,666	54,129	87.78		73,994	63,699	86.09		-1.69	-
	종사자수	342,718	100,160	29.23	1.85	432,506	121,626	28.12	1.91	-1.10	0.06
세 종	사업체수	-	-	-		8,257	6,958	84.27		-	-
	종사자수	-	-	-		43,355	14,651	33.79	2.11	-	-
경 기	사업체수	585,677	501,034	85.55		761,718	640,453	84.08		-1.47	-
	종사자수	2,731,295	1,066,372	39.04	2.13	3,754,616	1,378,011	36.70	2.15	-2.34	0.02
강 원	사업체수	103,980	95,021	91.38		120,030	108,315	90.24		-1.14	-
	종사자수	317,140	174,821	55.12	1.84	398,358	205,658	51.63	1.90	-3.50	0.06
충 북	사업체수	90,426	80,629	89.17		108,999	95,855	87.94		-1.22	-
	종사자수	370,648	151,657	40.92	1.88	482,594	186,173	38.58	1.94	-2.34	0.06
충 남	사업체수	115,462	103,591	89.72		139,737	123,139	88.12		-1.60	-
	종사자수	479,101	195,436	40.79	1.89	645,323	237,783	36.85	1.93	-3.95	0.04
전 북	사업체수	104,928	95,017	90.55		128,785	115,416	89.62		-0.94	-
	종사자수	355,011	174,888	49.26	1.84	469,405	216,105	46.04	1.87	-3.22	0.03
전 남	사업체수	109,099	99,902	91.57		125,518	113,350	90.31		-1.26	-
	종사자수	366,456	189,506	51.71	1.90	468,859	220,957	47.13	1.95	-4.59	0.05
경 북	사업체수	164,498	149,458	90.86		194,887	175,073	89.83		-1.02	-
	종사자수	638,914	276,039	43.20	1.85	798,407	335,891	42.07	1.92	-1.13	0.07
경 남	사업체수	195,583	173,823	88.87		239,066	210,259	87.95		-0.92	-
	종사자수	863,346	336,503	38.98	1.94	1,082,158	418,834	38.70	1.99	-0.27	0.06
제 주	사업체수	39,363	34,897	88.65		48,927	42,718	87.31		-1.34	-
	종사자수	124,734	65,599	52.59	1.88	169,258	82,065	48.49	1.92	-4.11	0.04

3. 소상공인 업종 및 유형별 비교 분석

소상공인 업종별 비교 시점과 분석 기준

- 본 연구의 업종 비교 시점은 2007년과 2014년으로, 2007년 한국표준 산업분류 변경에 의하여 2007년 이전 자료와 이후 자료의 업종분류 코드가 달라서 직접 비교에 어려움이 있어 2007년과 2014년을 비교함
- 본 장에서는 소상공인에 한정하여 2007년과 2014년 세부업종별 비중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업종내 전체사업체 대비 소상공인 기업 규모를 비교하고자 함

○ 소상공인 업종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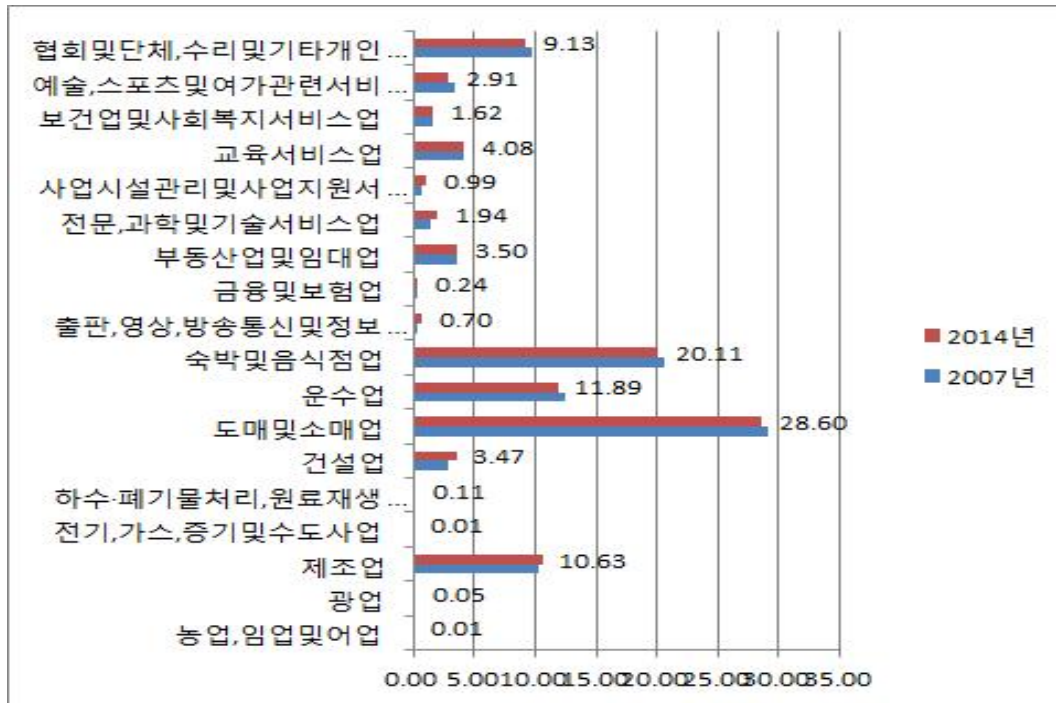
- 먼저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체 수 및 종사자수 기준으로 상위 5개 업종과 하위 5개 업종이 동일함을 알 수 있는 바, 소상공인의 기준이 종사자수 5인 이내 또는 9인 이내로 정의되어 있어서 사업체수가 많은 경우 종사자수가 크게 나타남
 - : 2014년 사업체수 기준 상위 5개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28.60%), 숙박 및 음식점업(20.11%), 운수업(11.89%), 제조업(10.6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9.13%)
 - : 2014년 종사자수 기준 상위 5개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26.24%), 숙박 및 음식점업(21.29%), 제조업(16.97%), 운수업(7.3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6.60%)
 - : 2014년 사업체수 기준 하위 5개 업종은 농업, 임업 및 어업(0.0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업(0.01%), 광업(0.05%),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0.11%), 금융 및 보험업(0.24%)
 - : 2014년 종사자수 기준 하위 5개 업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업(0.01%), 농업, 임업 및 어업(0.02%), 광업(0.09%),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0.13%), 금융 및 보험업(0.21%)
- 사업체 수 기준으로 도매 및 소매업이 전체 소상공인에서 28.60%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 비중도 가장 높다. 제조업의 경우 사업체수 기준으로 10.63%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종사자수

16.97%로 상당히 증가함

-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기준으로 하위 업종은 주로 1차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비중도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하고 0.2%미만으로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미미하다. 예외적으로 금융 및 보험업은 3차산업의 영역이지만, 주로 대기업의 영역이라서 소상공인의 비중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 2007년 대비 2014년 업종별 비중의 변화는 사업체수 기준으로 건설업의 증가변화는 0.70%로 가장 높다. 다음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0.42% 증가하였다. 비정규직화 등으로 인한 건설업 증가와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제조업이 사업체수 증가변화가 0.4%이지만, 종사자수 증가변화는 1.0%로 가장 높음
- 감소변화가 큰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이 사업체수 기준으로 0.77%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숙박 및 음식점업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각각 0.50% 감소하였다. 이러한 업종별 변화 추세는 저성장에 따른 경기둔화와 온라인상거래의 확산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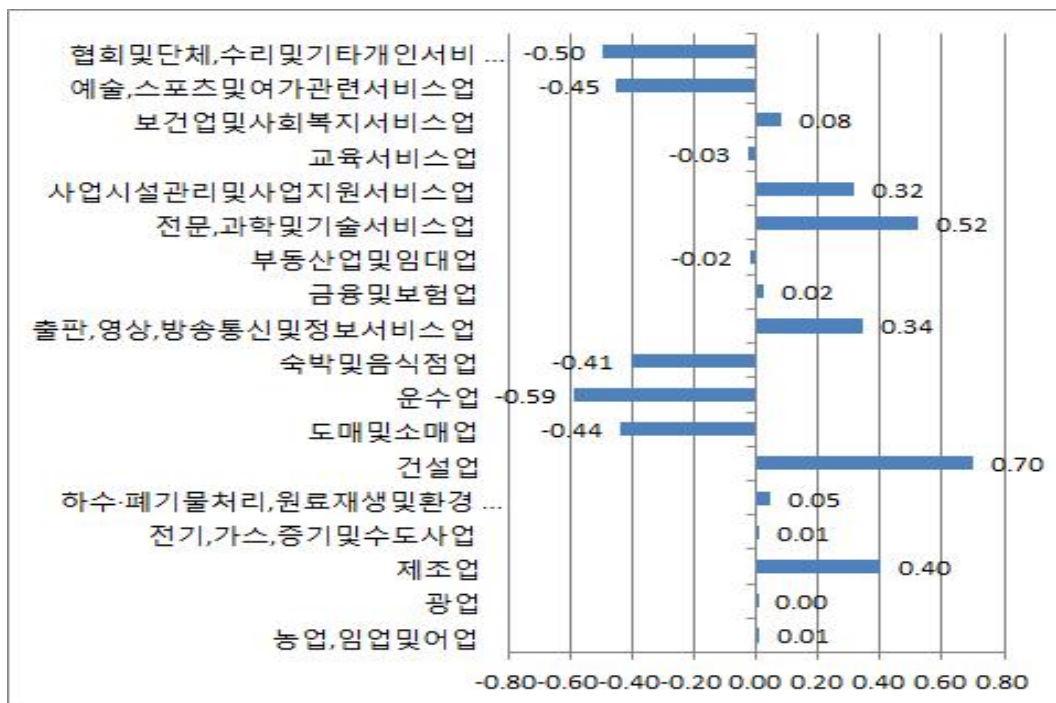
< 소상공인 사업체수 분포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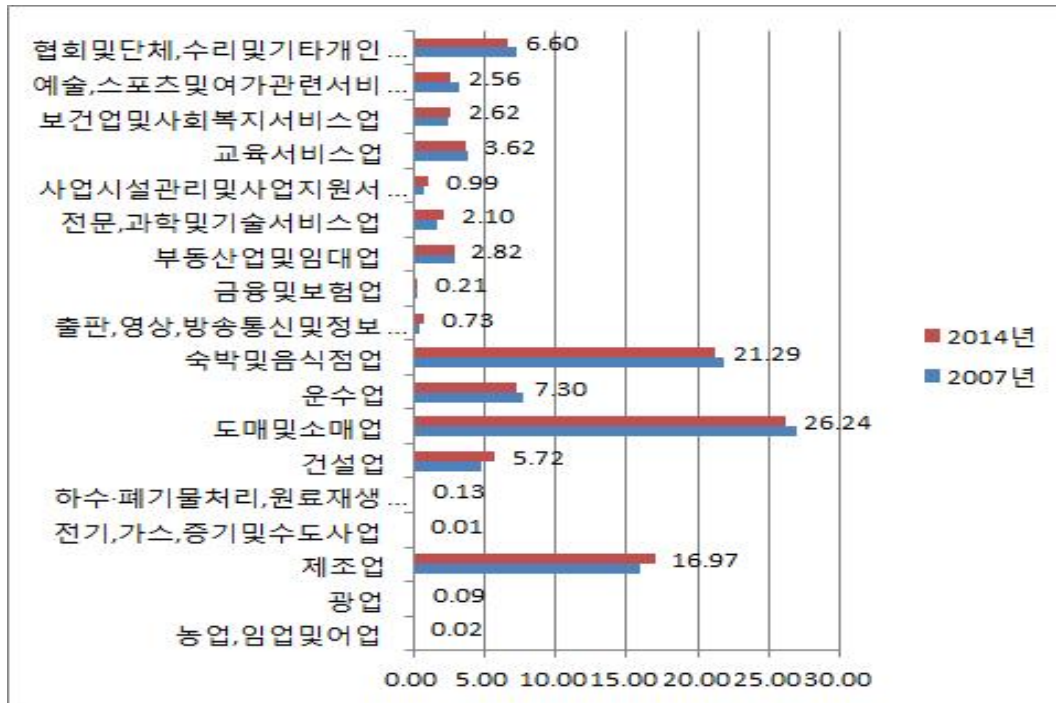
<업종별 소상공인 사업체수 분포 변화: 2007~2014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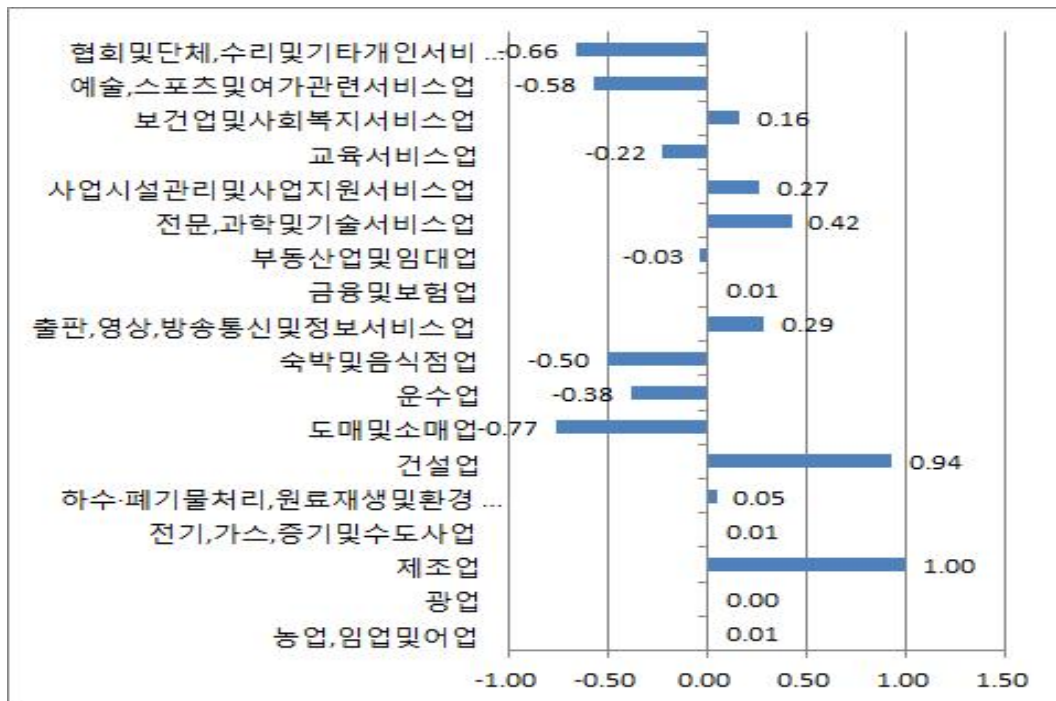
< 소상공인 종사자수 분포 >

: %



<업종별 소상공인 종사자수 분포 변화: 2007~2014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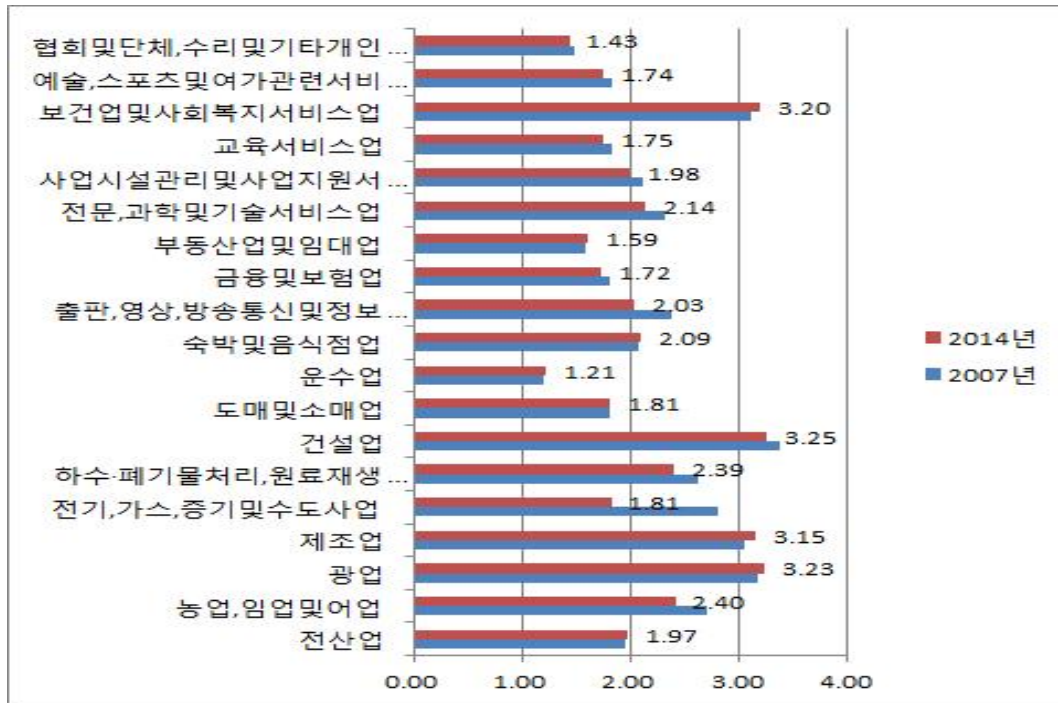


소상공인 평균 종사자수 분석

- 소상공인 전체 업체당 평균 종사자수는 2007년 1.95명에서 2014년 1.97명으로 소폭 증가하였음
- 2014년 기준으로 건설업이 3.25명, 광업 3.25명, 제조업 3.15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3.20명으로 여타 업종에 비해 평균 종사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반면, 운수업 1.21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43명, 부동산업 및 임대업 1.59명으로 동 업종의 경우 대부분 1인 사업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2007년 대비 2014년 업체당 평균 종사자수 변화는 제조업이 0.11명으로 상당히 크며 다음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0.08명 증가한 바, 이들을 제외하고는 업체당 종사자수가 크게 증가하는 업종은 없음
- 한편 업체당 평균 종사자수가 크게 감소한 업종으로는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이 0.99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35명, 농업, 임업 및 어업 0.23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23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0.17명으로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큼
- 그 외에 특이 사항으로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평균 종사자 감소폭은 크지만 사업체수 업종별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바, 이들 업종은 대부분 미래 유망 서비스업이라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창업은 증가하고 있으나 수익성이 높지 않은 소규모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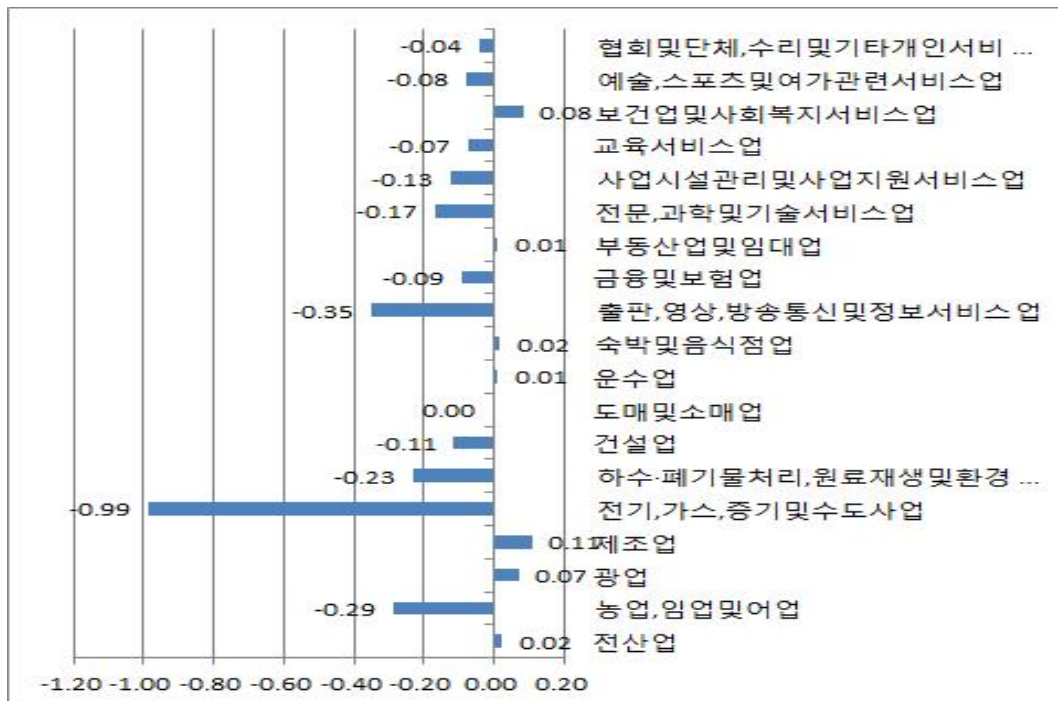
< 업종별 평균 종사자수 >

: 명



<소상공인 업종별 평균 종사자수 변화: 2007~2014년>

단위: 명



<

업종별 분포 및 종사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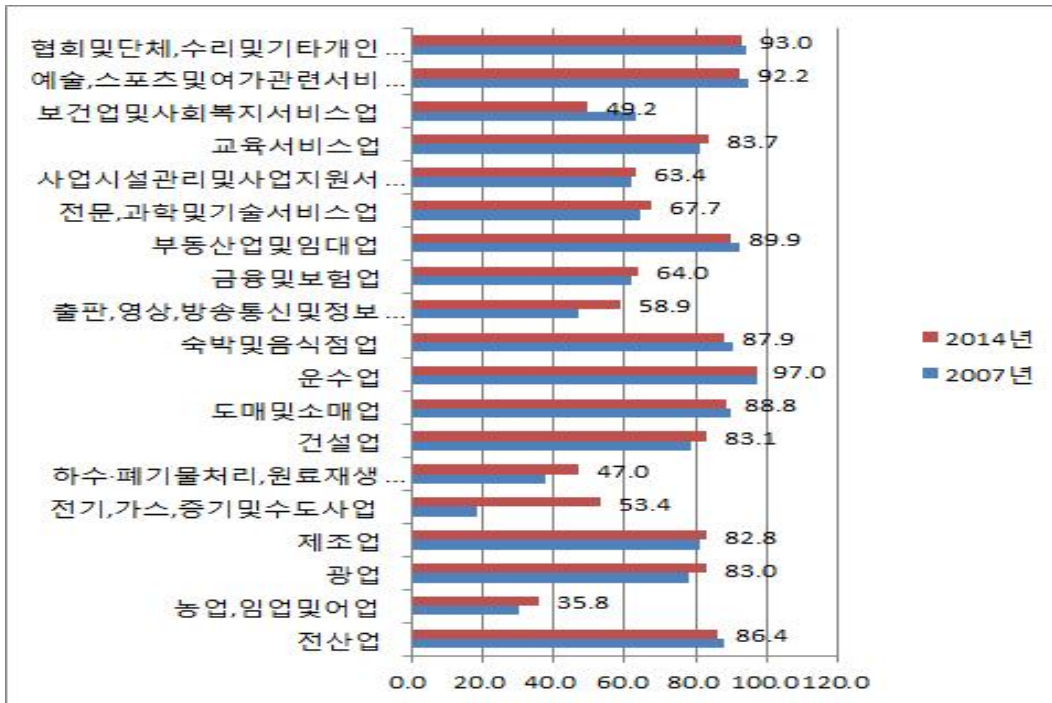
업종구분	항목	2007년			2014년			2007년 대비 2014년 변화	
		소상공 인 (개/명)	업종 비중 (%)	평균종 사자수 (명)	소상공 인 (개/명)	업종 비중 (%)	평균종 사자수 (명)	업종 비중 (%)	평균종 사자수 (명)
전산업	사업체수	2,616,222			3,063,001				
	종사자수	5,102,578		1.95	6,046,357		1.97		0.02
농업,임업및 어업	사업체수	178	0.01		410	0.01		0.01	
	종사자수	479	0.01	2.69	986	0.02	2.40	0.01	-0.29
광업	사업체수	1,389	0.05		1,659	0.05		0.00	
	종사자수	4,392	0.09	3.16	5,361	0.09	3.23	0.00	0.07
제조업	사업체수	267,657	10.23		325,621	10.63		0.40	
	종사자수	814,628	15.97	3.04	1,025,945	16.97	3.15	1.00	0.11
전기,가스,증 기및수도사 업	사업체수	71	0.00		324	0.01		0.01	
	종사자수	199	0.00	2.80	588	0.01	1.81	0.01	-0.99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 생및환경복 원업	사업체수	1,668	0.06		3,348	0.11		0.05	
	종사자수	4,369	0.09	2.62	7,994	0.13	2.39	0.05	-0.23
건설업	사업체수	72,576	2.77		106,420	3.47		0.70	
	종사자수	244,111	4.78	3.36	345,838	5.72	3.25	0.94	-0.11
도매및소매 업	사업체수	759,906	29.05		876,093	28.60		-0.44	
	종사자수	1,377,936	27.00	1.81	1,586,382	26.24	1.81	-0.77	0.00
운수업	사업체수	326,576	12.48		364,231	11.89		-0.59	
	종사자수	391,813	7.68	1.20	441,199	7.30	1.21	-0.38	0.01
숙박및음식 점업	사업체수	536,866	20.52		616,086	20.11		-0.41	
	종사자수	1,111,946	21.79	2.07	1,287,130	21.29	2.09	-0.50	0.02
출판,영상,방 송통신및정 보서비스업	사업체수	9,431	0.36		21,587	0.70		0.34	
	종사자수	22,456	0.44	2.38	43,891	0.73	2.03	0.29	-0.35
금융및보험 업	사업체수	5,763	0.22		7,381	0.24		0.02	
	종사자수	10,428	0.20	1.81	12,674	0.21	1.72	0.01	-0.09
부동산업및 임대업	사업체수	91,919	3.51		107,054	3.50		-0.02	
	종사자수	145,807	2.86	1.59	170,741	2.82	1.59	-0.03	0.01
전문,과학및 기술서비스 업	사업체수	37,064	1.42		59,340	1.94		0.52	
	종사자수	85,382	1.67	2.30	126,865	2.10	2.14	0.42	-0.17
사업시설관 리및사업지 원서비스업	사업체수	17,553	0.67		30,268	0.99		0.32	
	종사자수	36,959	0.72	2.11	59,932	0.99	1.98	0.27	-0.13
교육서비스 업	사업체수	107,529	4.11		124,966	4.08		-0.03	
	종사자수	195,827	3.84	1.82	218,610	3.62	1.75	-0.22	-0.07
보건업및사 회복지서비 스업	사업체수	40,265	1.54		49,582	1.62		0.08	
	종사자수	125,377	2.46	3.11	158,461	2.62	3.20	0.16	0.08
예술,스포츠 및여가관련 서비스업	사업체수	87,893	3.36		89,049	2.91		-0.45	
	종사자수	159,943	3.13	1.82	154,747	2.56	1.74	-0.58	-0.08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 개인서비스 업	사업체수	251,918	9.63		279,582	9.13		-0.50	
	종사자수	370,526	7.26	1.47	399,013	6.60	1.43	-0.66	-0.04
			199.98						

업종별 전체 사업체 대비 소상공인 비중

- 소상공인의 비중이 전체 업종에 걸쳐 평균적으로 소폭 감소한 바, 업종내 전체 사업체수 기준으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운수업이 약 97%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바, 본 업종 내에서는 대다수가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다음으로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순으로 동 업종은 종사자 수 측면에서도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소상공인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한편 2007년에는 업종내에서 소상공인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상인 업종이 5개였지만, 2014년에는 3개로 감소한 바, 2014년 기준 소상공인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업종은 농업, 임업 및 어업으로 업종내 전체 사업체수 대비 35.84%로 가장 낮으며, 다음으로 낮은 업종은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이 47.0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49.24% 순임
-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전기, 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사업이 4.70%로 업종 내 소상공인 종사자 비중이 가장 낮으며, 또한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이 6.42%, 금융 및 보험업이 6.84%로 상당히 낮은 편으로 이들 업종에서 소상공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음
- 2007년 대비 2014년 업종내 소상공인 비중 변화는 사업체수 기준으로 전기, 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이 34.84%로 가장 크게 증가한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13.88%가 감소함
- 한편 2007년 대비 2014년 업종내 소상공인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광업이 7.96%로 가장 크게 증가한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종사자수 기준으로 11.05% 감소함
- 또한 업종내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소폭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규모면에서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이 압도적인 바, 이들 업종에서 소상공인의 역할은 여전히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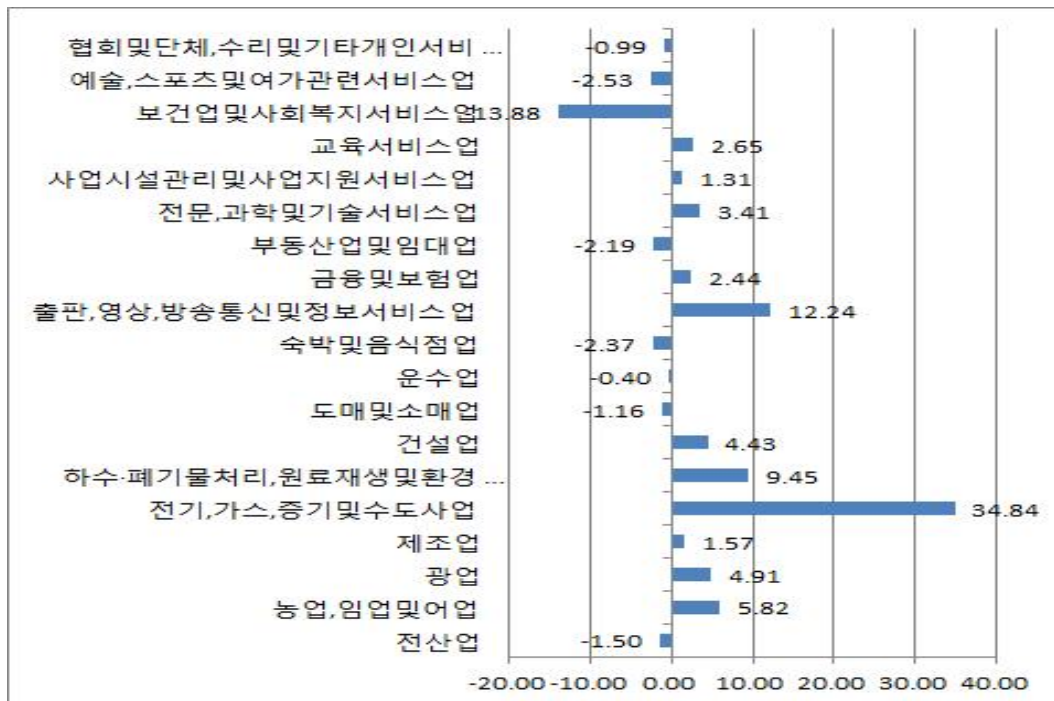
< 전체 사업체수 대비 소상공인 사업체수 비중>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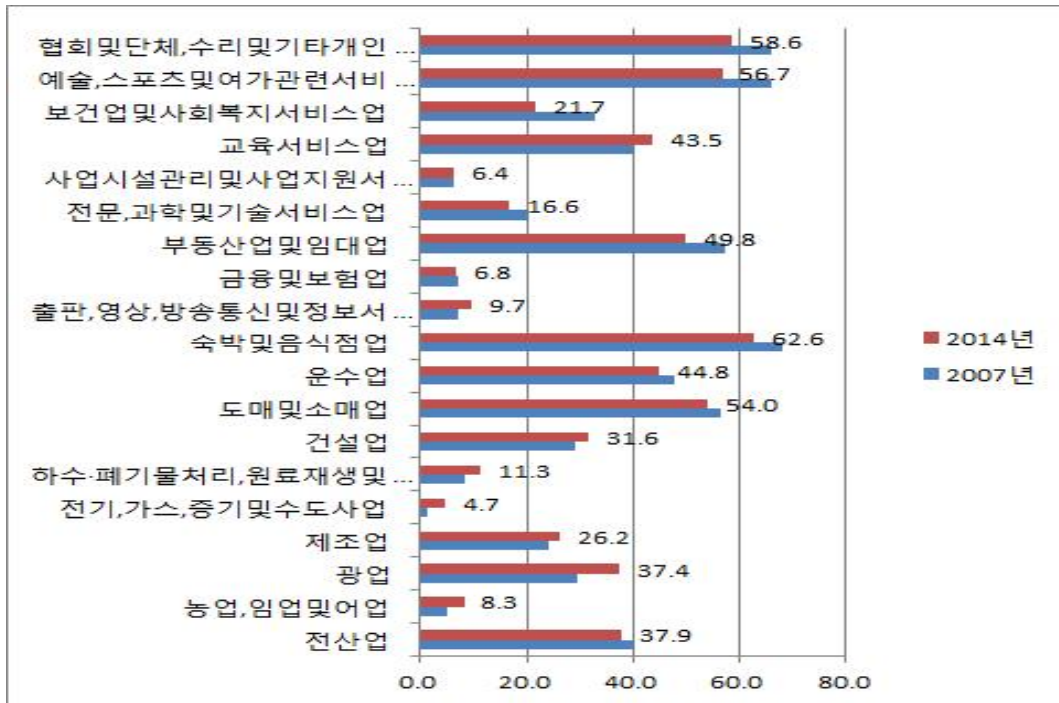
<업종별 전체 사업체수 대비 소상공인 사업체수 비중 변화: 2007~2014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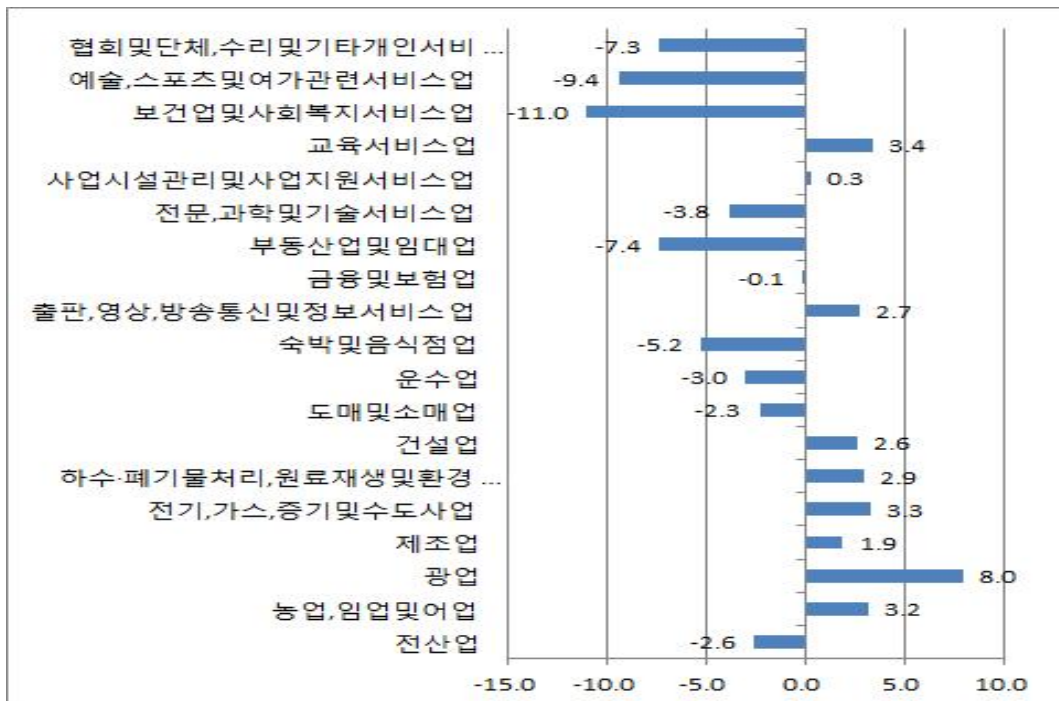
< 전체 종사자수 대비 소상공인 종사자수 비중>

: %



<업종별 전체 종사자수 대비 소상공인 종사자수 비중 변화: 2007~2014년>

단위: %



< 소상공인 기업규모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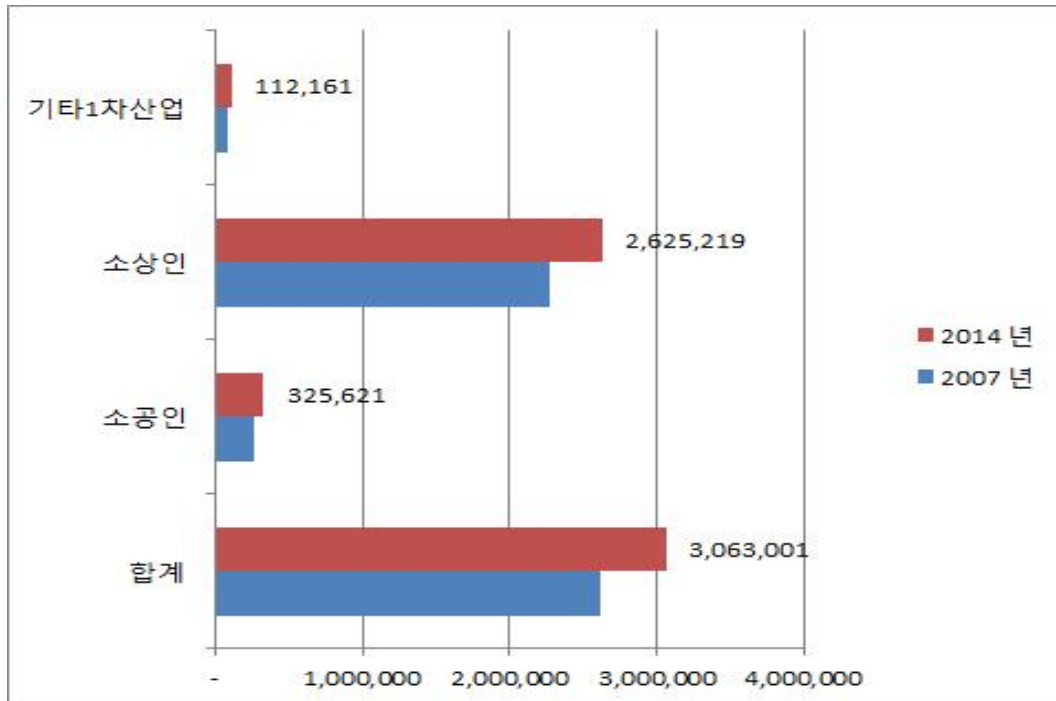
업종구분	항목	2007년			2014년			2007년 대비
		전체사업체 (개/명)	소상공인 (개/명)	소상공인 비중 (%)	전체사업체 (개/명)	소상공인 (개/명)	소상공인 비중 (%)	2014년 소상공인 비중 변화 (%)
전산업	사업체수	2,976,646	2,616,222	87.89	3,545,473	3,063,001	86.39	-1.50
	종사자수	12,612,692	5,102,578	40.46	15,962,745	6,046,357	37.88	-2.58
농업,임업및어업	사업체수	593	178	30.02	1,144	410	35.84	5.82
	종사자수	9,390	479	5.10	11,940	986	8.26	3.16
광업	사업체수	1,778	1,389	78.12	1,998	1,659	83.03	4.91
	종사자수	14,914	4,392	29.45	14,331	5,361	37.41	7.96
제조업	사업체수	329,583	267,657	81.21	393,361	325,621	82.78	1.57
	종사자수	3,355,966	814,628	24.27	3,918,150	1,025,945	26.18	1.91
전기,가스,증기및 수도사업	사업체수	383	71	18.54	607	324	53.38	34.84
	종사자수	13,936	199	1.43	12,520	588	4.70	3.27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 복원업	사업체수	4,443	1,668	37.54	7,124	3,348	47.00	9.45
	종사자수	52,479	4,369	8.33	71,050	7,994	11.25	2.93
건설업	사업체수	92,217	72,576	78.70	128,018	106,420	83.13	4.43
	종사자수	840,810	244,111	29.03	1,093,634	345,838	31.62	2.59
도매및소매업	사업체수	844,795	759,906	89.95	986,662	876,093	88.79	-1.16
	종사자수	2,445,217	1,377,936	56.35	2,935,726	1,586,382	54.04	-2.32
운수업	사업체수	335,283	326,576	97.40	375,483	364,231	97.00	-0.40
	종사자수	819,128	391,813	47.83	984,789	441,199	44.80	-3.03
숙박및음식점업	사업체수	595,018	536,866	90.23	701,262	616,086	87.85	-2.37
	종사자수	1,638,639	1,111,946	67.86	2,055,340	1,287,130	62.62	-5.23
출판,영상,방송통 신및정보서비스업	사업체수	20,198	9,431	46.69	36,628	21,587	58.94	12.24
	종사자수	320,095	22,456	7.02	450,612	43,891	9.74	2.72
금융및보험업	사업체수	9,359	5,763	61.58	11,529	7,381	64.02	2.44
	종사자수	149,729	10,428	6.96	185,278	12,674	6.84	-0.12
부동산업및임대 업	사업체수	99,770	91,919	92.13	119,032	107,054	89.94	-2.19
	종사자수	255,099	145,807	57.16	342,947	170,741	49.79	-7.37
전문,과학및기술 서비스업	사업체수	57,624	37,064	64.32	87,607	59,340	67.73	3.41
	종사자수	418,275	85,382	20.41	765,794	126,865	16.57	-3.85
사업시설관리및 사업지원서비스 업	사업체수	28,277	17,553	62.08	47,753	30,268	63.38	1.31
	종사자수	603,198	36,959	6.13	932,803	59,932	6.42	0.30
교육서비스업	사업체수	132,646	107,529	81.06	149,274	124,966	83.72	2.65
	종사자수	488,581	195,827	40.08	502,751	218,610	43.48	3.40
보건업및사회복 지서비스업	사업체수	63,792	40,265	63.12	100,703	49,582	49.24	-13.88
	종사자수	382,955	125,377	32.74	730,544	158,461	21.69	-11.05
예술,스포츠및여 가관련서비스업	사업체수	92,810	87,893	94.70	96,608	89,049	92.18	-2.53
	종사자수	242,019	159,943	66.09	273,101	154,747	56.66	-9.42
협회및단체,수리 및기타개인서비스 스	사업체수	268,077	251,918	93.97	300,680	279,582	92.98	-0.99
	종사자수	562,262	370,526	65.90	681,435	399,013	58.55	-7.34

소공인과 소상공 비교 분석

- 소상공인은 크게 소공인과 소상공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바, 두 유형의 소상공인은 각기 다른 산업특성을 지니고 있음
- 2015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소공인에 대한 지원이 증대되고 있다. 본 법령에 정하는 소공인의 기준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주요업종은 기계, 금속가공,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인쇄 등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이다. 구체적으로 도시형소공인의 업종을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상위분류인 제조업을 소공인으로 분류하고, 소상공인은 주로 서비스업 중심으로 업종구분이 된 산업 ‘G’부터 ‘S’ 사이에 있는 업종을 포함한 바, 1차산업 관련 소상공인 기타로 분류하였음(분류표상 A, B, D, E, F를 포함함)
- 소상공인 내에서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으로 사업체 수 측면에서 소공인 10.63%, 소상공인 85.71%, 기타 3.22%로 구성되어 있음
- 종사자수 측면에서 소공인 16.97%, 소상공인 77.07%, 기타 5.97%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 바, 소상공인이 소공인 및 기타 소상공인보다 절대적인 양 측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4년 기준으로 유형별 평균 종사자수는 소공인 사업체당 평균 3.15명을 고용하고 있는 반면, 소상공인 1.77명, 기타 3.22명으로, 소공인이 규모와 고용 측면에서 보다 큰 것으로 판단됨
- 2007년 대비 2014년 기간 동안의 사업체수 변화와 관련하여 소상공인은 다른 두 유형에 비해서 큰 폭으로 감소하였지만, 나머지 유형에서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한편 유형별 평균 종사자수는 소공인이 평균 0.11명 증가하였으며, 소상공인의 경우는 동 기간 큰 변화가 없는 반면, 1차산업 관련 소상공인은 동 기간 0.12명이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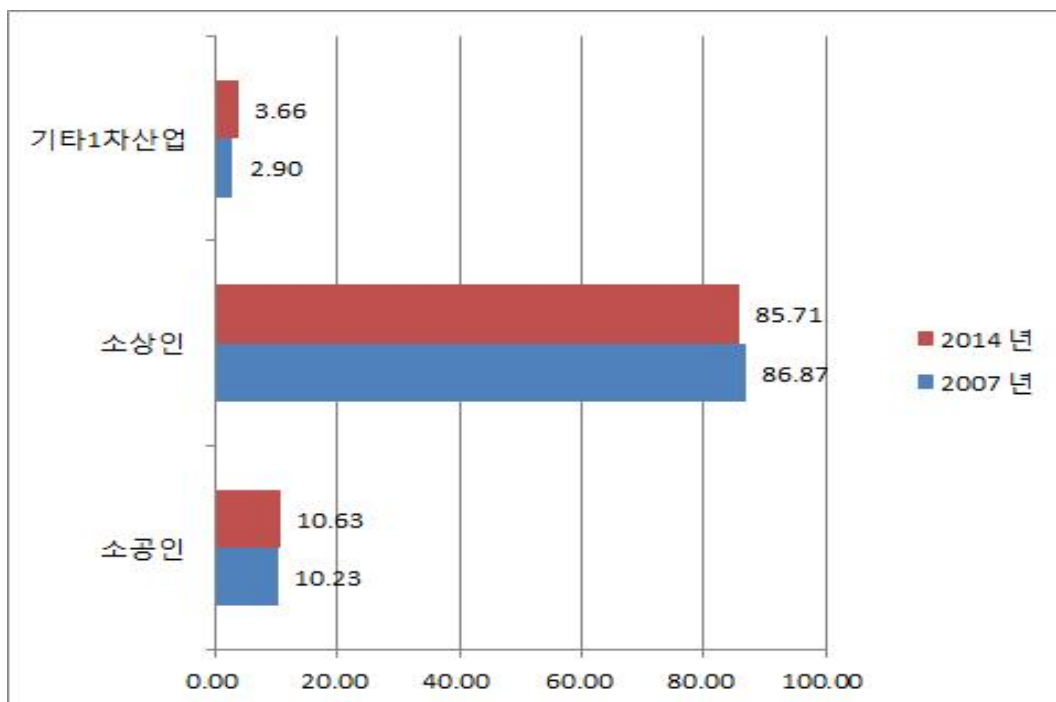
< 유형별 업체수 >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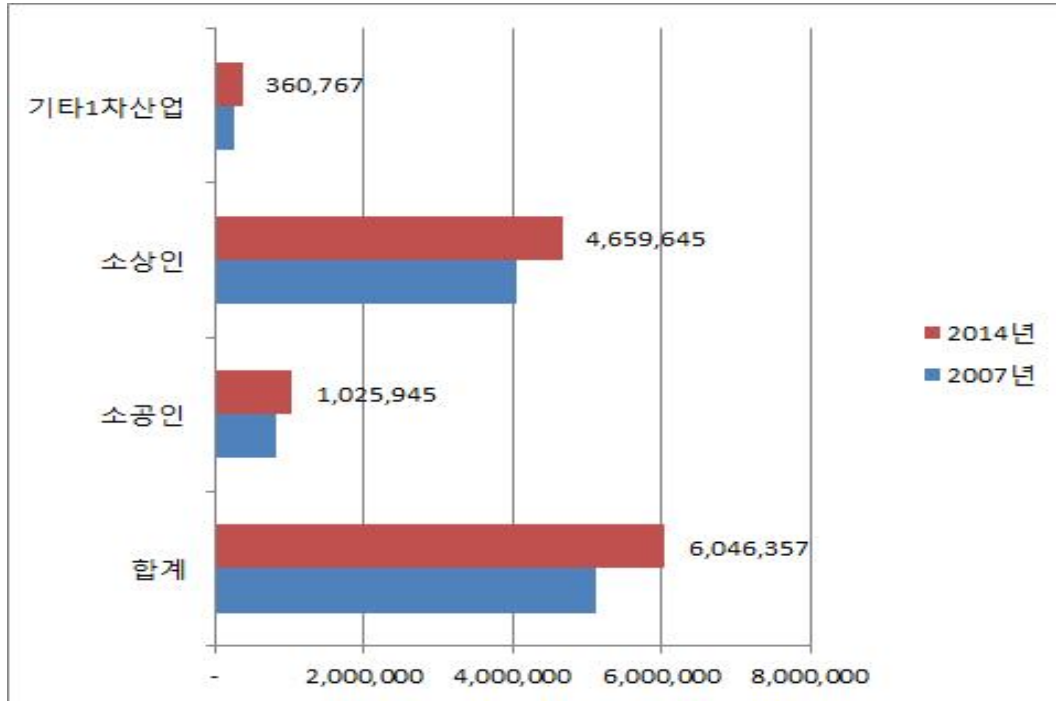
<소상공인 유형별 업체수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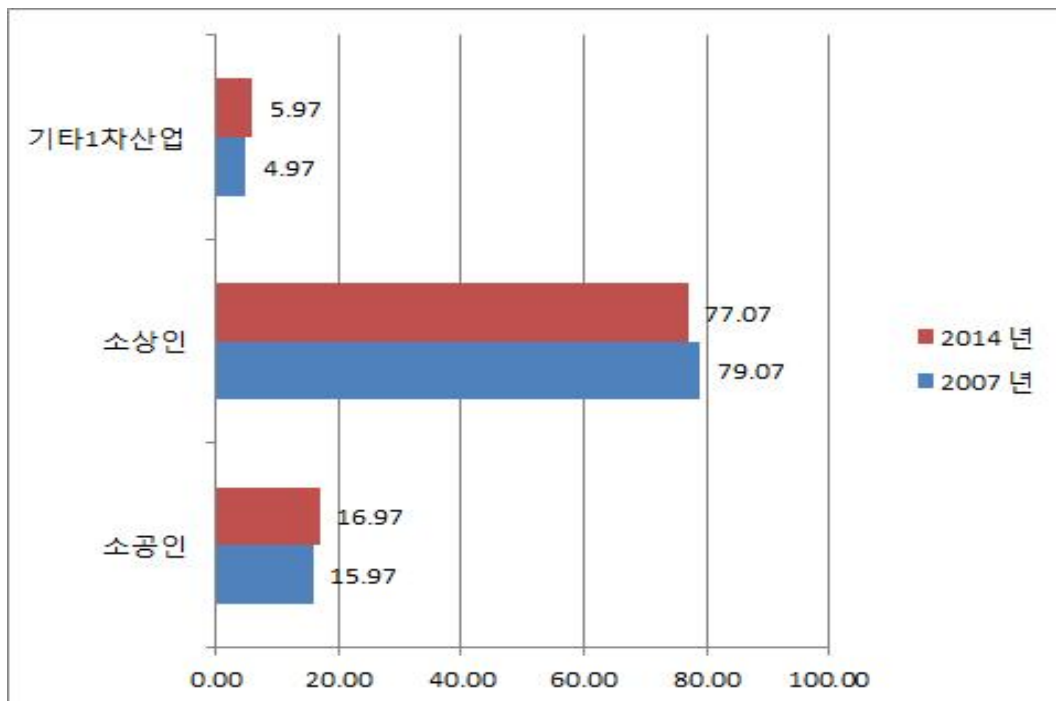
< 유형별 종사자수 >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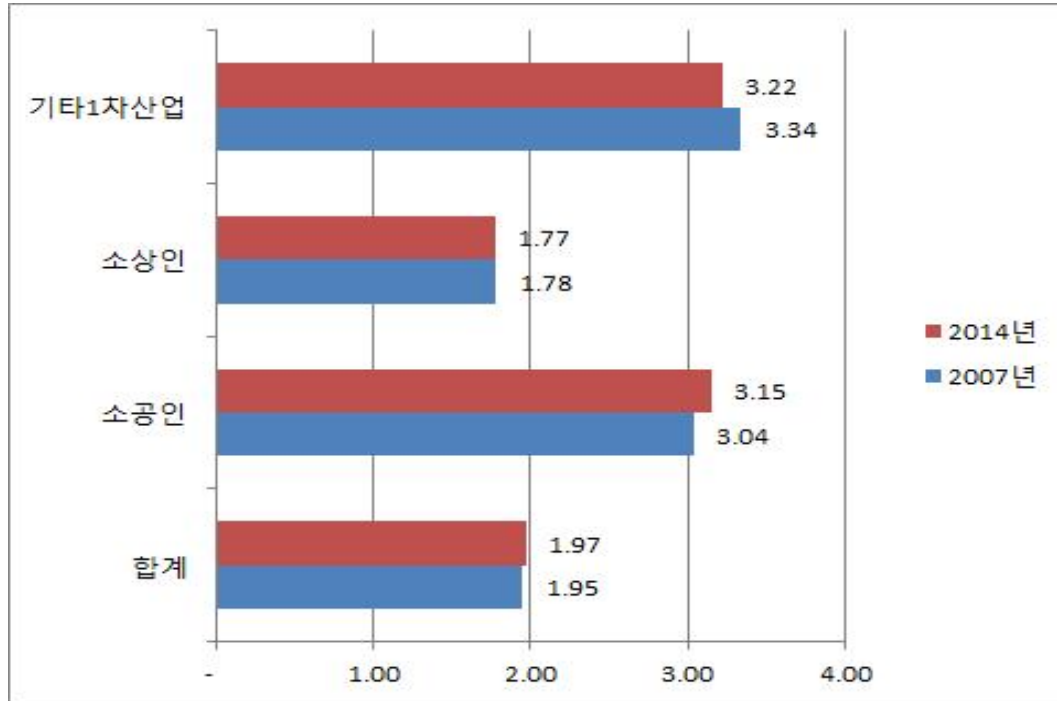
<소상공인 유형별 종사자수 비중>

단위: %



< 유형별 평균 종사자수 >

: 명



<소상공인 유형별 비교 분석>

유형구분	항목	2007년			2014년			2007년 대비 2014년 변화	
		소상공인 (개/명)	유형별 비중 (%)	유형별 평균 종사자수 (명)	소상공인 (개/명)	유형별 비중 (%)	유형별 평균 종사자수 (명)	유형별 비중 (%)	유형별 평균 종사자수 (명)
전산업	사업체수	2,616,222			3,063,001				
	종사자수	5,102,578		1.95	6,046,357		1.97		0.02
소공인	사업체수	267,657	10.23		325,621	10.63		0.40	
	종사자수	814,628	15.97	3.04	1,025,945	16.97	3.15	1.00	0.11
소상인	사업체수	2,272,683	86.87		2,625,219	85.71		-1.16	
	종사자수	4,034,400	79.07	1.78	4,659,645	77.07	1.77	-2.00	-0.01
기타-1차 산업 관련 소상공인	사업체수	75,882	2.90		112,161	3.66		0.76	
	종사자수	253,550	4.97	3.34	360,767	5.97	3.22		-0.12

4. 소상공인 경영성과 비교 분석

소상공인 업종별 경영성과 분석 자료

- 경영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아래의 표와 같은 업종별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고, 이중 대표적인 업종이라 할 수 있는 제조업에서의 소상공인 경영성과를 전체 제조업과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경영성과와 비교함
- 다만 제조업의 소상공인 분류기준은 1~9명이나 1~4인 구간의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바 5~9인 대상 소상공인 경영성과를 통해 소상공인의 대략적인 경영성과 추세변화를 추정함⁵⁾

< 조사자료 및 소상공인 기준 특이사항>

업종	조사명	비고
- 농업, 임업 및 어업		
- 광업		
- 제조업	중소기업실태조사	소상공인기준은 1~9인이나 본 자료에서는 5~9인으로 분석되어 있음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서비스업조사	
- 건설업	건설업조사	
- 도매 및 소매업	도소매업조사	
- 운수업	운수업조사	소상공인 기준은 1~4인이나 본 자료에서는 1~9인으로 분석되어 있음
- 숙박 및 음식점업	도소매업조사	
-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서비스업조사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및 임대업	서비스업조사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 사업 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서비스업조사	
- 교육 서비스업	서비스업조사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서비스업조사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서비스업조사	
-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서비스업조사	

5) 현황분석에서는 영리여부, 개인사업체 및 상법상 회사법인 이외의 사업체는 소상공인 통계에서 제외하였으나, 경영성과 분석에서는 각 조사별로 소상공인 종사자수 기준이 달라 소상공인 현황분석에서의 수치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분야 소상공인 연도별 경영성과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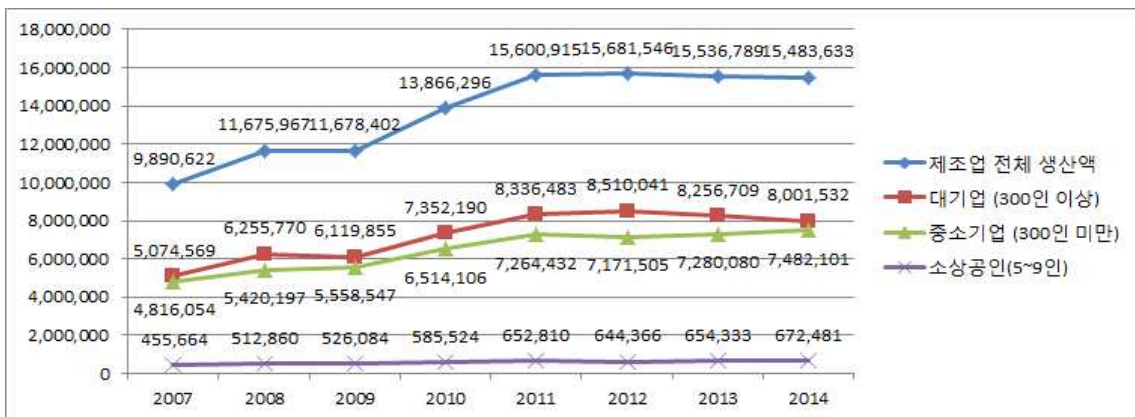
사업체수								단위: 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제조업	119,132	112,576	111,722	113,515	114,651	116,174	118,773	124,369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대기업	626	619	596	618	631	674	671	708
	0.5%	0.5%	0.5%	0.5%	0.6%	0.6%	0.6%	0.6%
중소기업	118,506	111,957	111,126	112,897	114,020	115,500	118,102	123,661
	99.5%	99.5%	99.5%	99.5%	99.4%	99.4%	99.4%	99.4%
5~9인	57,821	54,630	54,234	51,693	52,198	52,859	54,058	56,593
	48.5%	48.5%	48.5%	45.5%	45.5%	45.5%	45.5%	45.5%
종사자수								단위: 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제조업	2,861,934	2,796,038	2,798,297	2,968,460	3,030,441	3,095,327	3,165,770	3,267,93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대기업	662,132	661,339	647,846	679,121	707,002	731,366	724,021	738,258
	23.1%	23.7%	23.2%	22.9%	23.3%	23.6%	22.9%	22.6%
중소기업	2,199,802	2,134,699	2,150,451	2,289,339	2,323,439	2,363,961	2,441,749	2,529,673
	76.9%	76.3%	76.8%	77.1%	76.7%	76.4%	77.1%	77.4%
5~9인	371,130	360,071	362,749	350,472	355,589	361,690	373,605	387,014
	13.0%	12.9%	13.0%	11.8%	11.7%	11.7%	11.8%	11.8%
생산액								단위: 억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제조업	9,890,622	11,675,967	11,678,402	13,866,296	15,600,915	15,681,546	15,536,789	15,483,633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대기업	5,074,569	6,255,770	6,119,855	7,352,190	8,336,483	8,510,041	8,256,709	8,001,532
	51.3%	53.6%	52.4%	53.0%	53.4%	54.3%	53.1%	51.7%
중소기업	4,816,054	5,420,197	5,558,547	6,514,106	7,264,432	7,171,505	7,280,080	7,482,101
	48.7%	46.4%	47.6%	47.0%	46.6%	45.7%	46.9%	48.3%
5~9인	455,664	512,860	526,084	585,524	652,810	644,366	654,333	672,481
	4.6%	4.4%	4.5%	4.2%	4.2%	4.1%	4.2%	4.3%
출하액								단위: 억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제조업	9,850,513	11,576,784	11,691,718	13,780,625	15,491,160	15,648,355	15,501,135	15,460,96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대기업	5,062,126	6,202,955	6,137,663	7,303,850	8,293,200	8,504,823	8,246,285	8,007,797
	51.4%	53.6%	52.5%	53.0%	53.5%	54.3%	53.2%	51.8%
중소기업	4,788,387	5,373,829	5,554,055	6,476,776	7,197,960	7,143,531	7,254,850	7,453,164
	48.6%	46.4%	47.5%	47.0%	46.5%	45.7%	46.8%	48.2%
5~9인	454,435	510,016	527,259	586,711	652,374	647,343	657,653	675,607
	4.6%	4.4%	4.5%	4.3%	4.2%	4.1%	4.2%	4.4%
부가가치								단위: 억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제조업	3,449,638	3,848,731	3,926,600	4,547,758	5,015,507	5,021,589	5,013,630	5,080,85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대기업	1,702,869	1,953,567	1,944,638	2,390,399	2,641,683	2,628,982	2,562,544	2,480,735
	49.4%	50.8%	49.5%	52.6%	52.7%	52.4%	51.1%	48.8%
중소기업	1,746,770	1,895,164	1,981,962	2,157,359	2,373,824	2,392,607	2,451,086	2,600,115
	50.6%	49.2%	50.5%	47.4%	47.3%	47.6%	48.9%	51.2%
5~9인	176,178	191,134	199,924	213,973	235,430	237,246	243,168	257,904
	5.1%	5.0%	5.1%	4.7%	4.7%	4.7%	4.9%	5.1%
생산성(1인당 부가가치)								단위: 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제조업	12,054	13,765	14,032	15,320	16,550	16,223	15,837	15,548
전체								
대기업	25,718	29,540	30,017	35,198	37,365	35,946	35,393	33,603
중소기업	7,941	8,878	9,216	9,424	10,217	10,121	10,038	10,278
5~9인	4,747	5,308	5,511	6,105	6,621	6,559	6,509	6,664

업체 규모별 생산액 비교

-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체의 생산액은 2007년 9,890,622억원에서 2014년 15,483,633억원으로 동 기간 동안 약 1.57배 증가하였고, 이를 종사자 기준 3개 규모 집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07년 대비 2014년 대기업(300인 이상)과 중소기업(300인 미만)의 생산액은 각각 1.58배와 1.55배 증가한 반면 소상공인(5~9인)의 생산액은 1.48배 증가에 그침

< 규모별 생산액 >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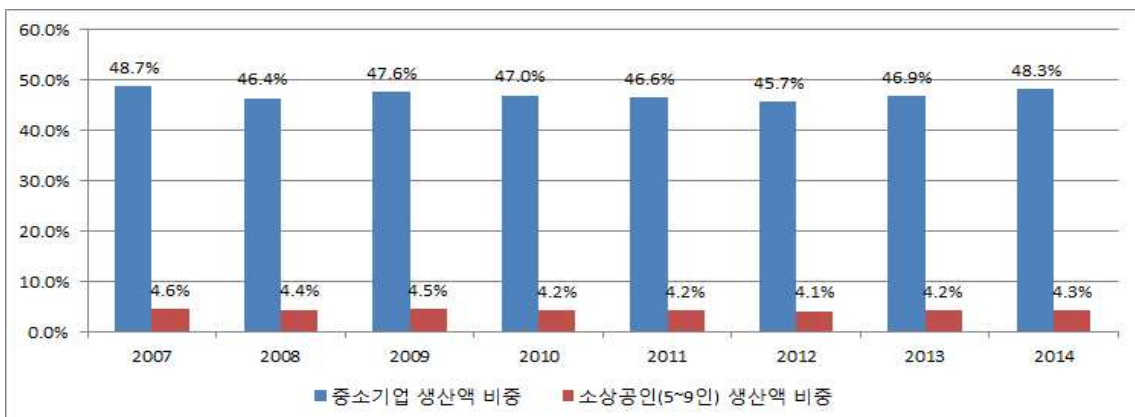


○ 전체 업체 대비 생산액 비중 비교

- 전체 제조업체 생산액 대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산액 비중은 2007년 각각 48.7%와 4.6%였으나 2014년 48.3%와 4.3%로 감소함

<전체 제조업체 대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생산액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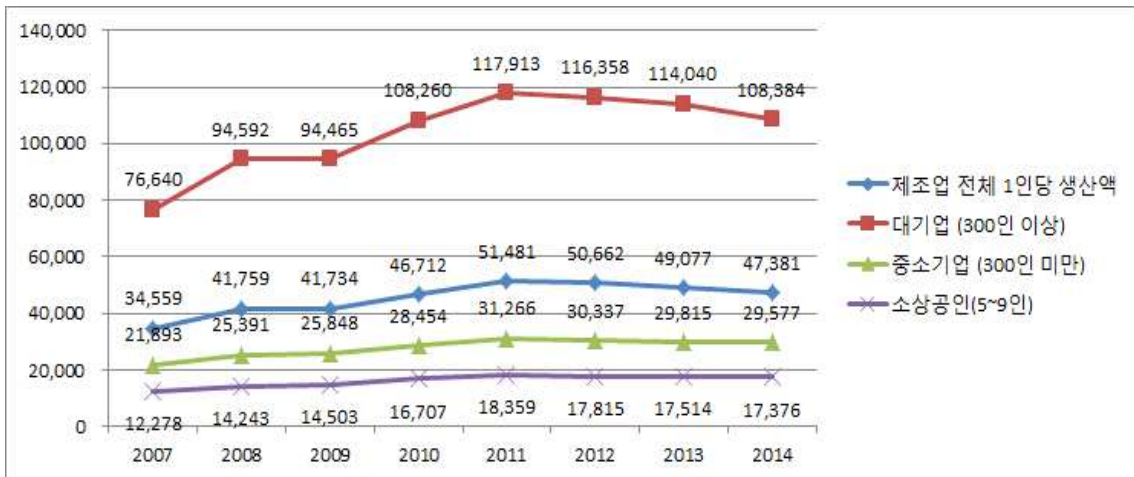


업체 규모별 생산성 비교

-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체의 생산성(1인당 생산액)은 2007년 76,640만원에서 2014년 108,384만원으로 동 기간 동안 약 1.37배 증가하였고, 3개 규모집단별로 나누어 생산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14년 기준 대기업(300인 이상)과 중소기업(300인 미만)의 생산성은 각각 108,384만원과 29,577만원으로 소상공인(5~9인) 생산성(17,376만원)의 약 6.24배와 1.74배에 달하는 바, 소상공인의 생산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수준임
- 2007년 대비 2014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각각 1.41배와 1.35배 증가한 반면 소상공인의 생산성은 1.42배 증가한 바,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다소 증가폭은 높음

< 규모별 1인당 생산성 >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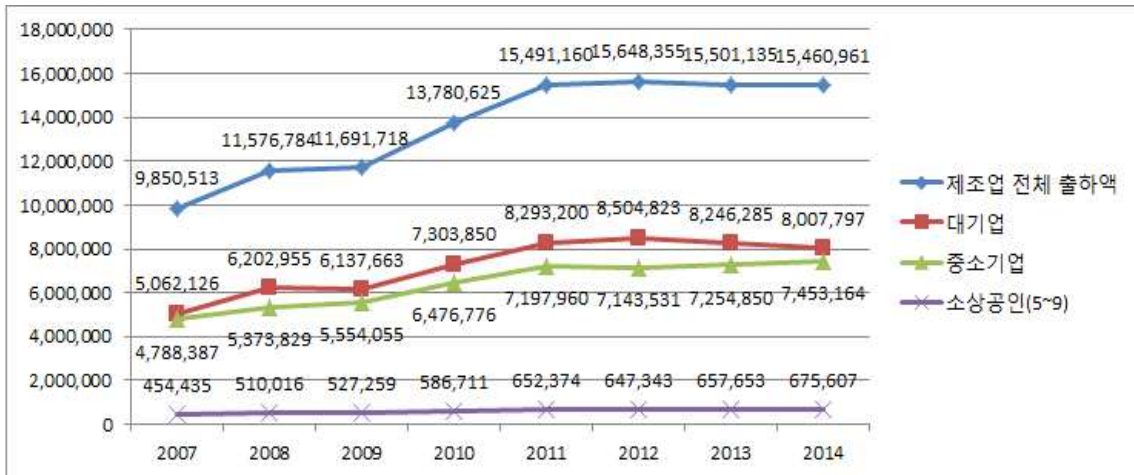


○ 업체 규모별 출하액 비교

-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체의 출하액은 2007년 9,850,515억원에서 2014년 15,460,961억원으로 동 기간 동안 약 1.57배 증가함
- 2007년 대비 2014년 대기업(300인 이상)과 중소기업(300인 미만)의 출하액은 각각 1.58배와 1.56배 증가한 반면 소상공인(5~9인)의 출하액은 1.49배 증가에 그쳐 생산액 추세와 유사한 경향을 보임

< 규모별 출하액 >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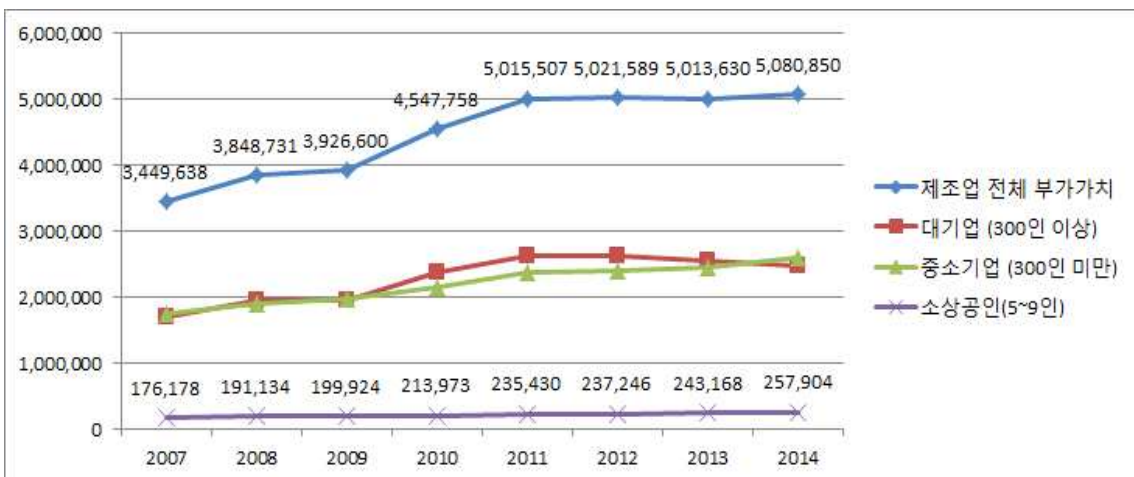


업체 규모별 부가가치 비교

-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체의 부가가치는 2007년 3,449,638억원에서 2014년 5,080,850억원으로 동 기간 동안 약 1.47배 증가함
- 2007년 대비 2014년 대기업(300인 이상)과 중소기업(300인 미만)의 부가가치는 각각 1.46배와 1.49배 증가한 반면 소상공인(5~9인)의 부가가치는 1.46배가 증가한 바, 규모집단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제조업체 규모별 부가가치>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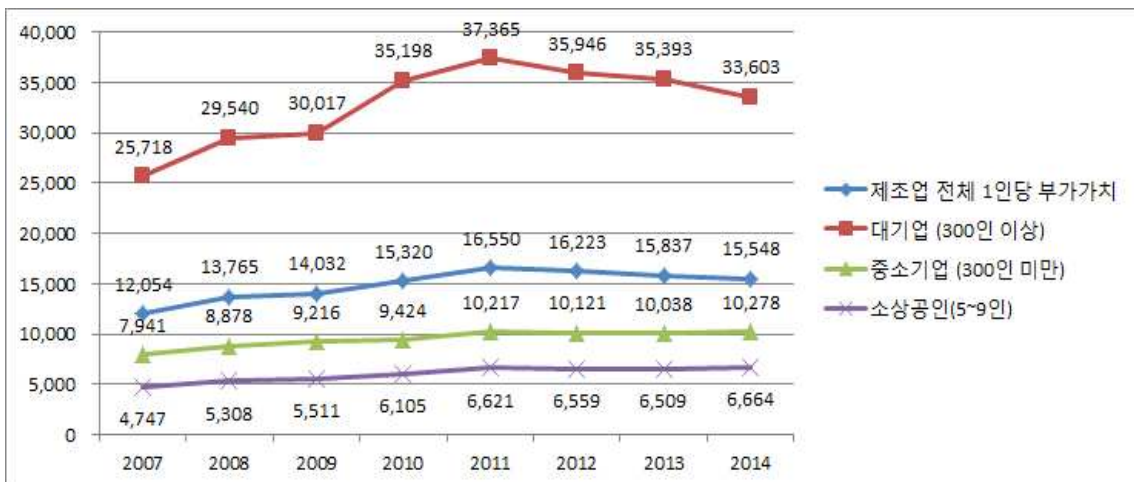


업체 규모별 1인당 부가가치 비교

-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체의 1인당 부가가치는 2007년 12,054만원에서 2014년 15,438만원으로 동 기간 동안 약 1.29배 증가하였고, 3개 규모집단별로 나누어 생산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14년 기준 대기업(300인 이상)과 중소기업(300인 미만)의 부가가치는 각각 33,603만원과 10,278만원으로 소상공인(5~9인) 부가가치(6,664만원)의 약 5.04배와 1.54배에 달하는 바, 소상공인의 부가가치가 다른 집단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수준임
- 2007년 대비 2014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각각 1.31배와 1.29배 증가한 반면 소상공인의 부가가치는 1.40배 증가한 바,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다소 증가폭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규모별 1인당 부가가치 >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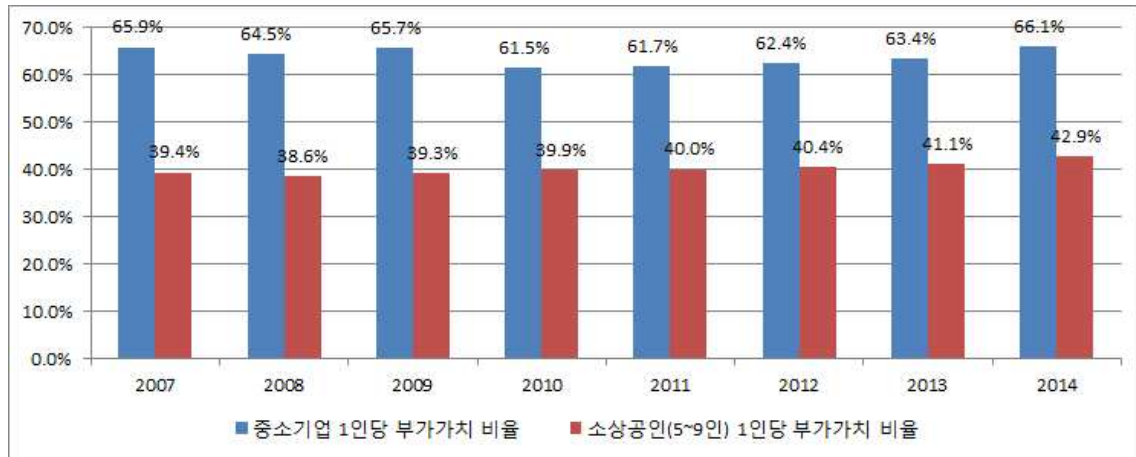


○ 업체 규모별 1인당 부가가치 비율 비교

-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체 1인당 부가가치 대비 중소기업(300인 미만)과 소상공인(5~9인) 1인당 부가가치 비율은 각각 2007년 65.9%와 39.4%에서 2014년 66.1%와 42.9%로 소폭 증가함
- 따라서 2014년 현재 소상공인의 1인당 부가가치가 제조업체 평균에 비해서는 현격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연차적으로 격차가 축소됨을 알 수 있음

< 제조업체 대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1인당 부가가치 비율>

: %



5. 소상공인의 중요성과 경기사이클

소상공인의 국민경제적 비중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상공인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측면에서 막중함을 알 수 있는 바, 2014년 기준 소상공인의 사업체수는 전체사업체수 대비 약 86%에 달하며,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38%에 달함
- 소상공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생활형 서비스업의 경우 소상공인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할 수 있음
- 물론 소상공인의 정의상 상시근로자 수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적기에 생산액이나 부가가치액 측면에서는 규모면에서 크게 차이가 있음
- 하지만 소상공인의 몰락은 개인이나 가정을 넘어 지역경제와 서민경제 전반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됨
- 더불어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소상공인의 폐업은 빈곤층의 확대와 실업의 양산 등으로 인해 재정지출 및 여타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수반하는 바, 정치·경제·사회적인 불안정성을 확대 재생산하게 됨

○ 경기사이클과 소상공인 정책

- 최근 경제성장동력 약화 및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경제전반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소비심리의 저하와 더불어 소상공인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음
- 이러한 국민경제의 근본적 문제와 더불어 최근 국내외적 경제환경의 악화로 인한 경기위축 국면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대상은 상대적으로 경영환경이 열악한 소상공인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최근 조선, 해운업 등의 구조조정 사례에서 보듯이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반대로 경기회복 국면에서도 빠른 혜택을 보기 어려운 대상 역시 소상공인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전체 GDP나 경제전반의 경기 동향이 소상공

생산과 경기에 선행한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국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서민경제의 활성화 없이는 소비나 전체 GDP 역시 증가할 수 없는 바 GDP는 소상공인 생산에 일정 부분 후행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음
- 이를 종합하면 전체 GDP와 소상공인 생산 양자 간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동시에 선행과 후행한다고 할 수 있는 바, 순환적인 구조라고 사료됨
- 한편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식 및 정책수단과 관련하여서는 한계 업체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 지원보다는 경쟁 원리의 중시, 선택과 집중 원리의 구현 등을 고려한 간접적인 사업 환경조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
- 따라서 정부는 소상공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업종별 특성에 부합하는 스마트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선제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부록> 소상공인 성공사례 : 2014 KOSBI 여성기업인상 수상자

1) ()롤팩 - 김금자 대표 : 기업가정신상

- (주)롤팩의 김금자 대표는 지난 28년 장기간을 외길 경영 연포장계 중소기업에 몸담은 뚝심의 여성기업인으로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해 해당 부문(가정용 진공포장기용 진공팩 제조)에서 세계적 수준의 품질수준 및 경쟁력 확보를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신장에 이바지 하였고 지역사회 및 여성경제인협회 발전에도 기여한 바가 높이 평가됨
- 1986 자하소규모 공장에서 라면과 아이스크림 등 각종 포장재를 생산한 이래 국내최초의 자동화생산 도입하여 국내외 각종 인증을 획득하는 등 생산공정의 개선과 효율화에 앞장 선 현장 실무자 출신의 입지전적인 인물로 본 기업가정신상의 수상 목적에 부합함.
- 또한 현존하는 최고의 식품포장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진공포장기술인 EPC(extended pattern coated)형 진공백을 해당 분야 전세계 1위 업체에 납품하여 2013년 기준 134억원의 수출성과를 거두었고, 2007년 이래 8년 연속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됨

업체 기본현황						
번호	과목	내용				
①	사업체명	(주)롤팩				
	현 주소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04-1				
	사업자등록번호	134-81-89985				
②	대표자 성명	김금자				
	대표자 번호(연락처)	010-5219-7177				
③	기업소유 형태	소유주 성별 : 남(), 여(O)				
		경영주 성별 : 남(), 여(O)				
④	주생산품명	진공포장기계 및 필름				
⑤	종업원수(상시근로자)	2010(55)명, 2011(50)명, 2012(48)명, 2013(55)명				
⑥	설립연도	2002				
⑦	매출액(단위: 백만 원)	내 수	2010(3,436), 2011(2,334), 2012(2,169), 2013(2,169)			
		수 출	2010(12,485), 2011(7,790), 2012(10,306), 2013(13,410)			
	순이익(단위: 백만 원)	2010(2,843), 2011(486),2012(770), 2013(949)				
⑧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2010(0.73 %), 2011(1.49 %), 2012(1.92 %), 2013(2.12%)				
⑨	전문인력 보유현황 (직종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무직	10명	10명	9명	13명
		생산기능직	40명	35명	34명	37명
		연구기술직	5명	5명	5명	5명

<공적요약>
28년 오직 외길경영 연포장재 중소기업에 몸담은 여성기업인 으로서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해당부문사업(가정용진공포장기용 진공백 제조)의 세계적 품질과 경쟁력으로 해외 1위 업체에 15년 이상 공급하며 수출신장 에 이바지 하였고, 생산성향상과 원가절감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경영혁신을 통한 꾸준한 회사성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및 여성경제인협회의 발전 에도 기여한 바가 큼니다.
특히, 최근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3년여 간의 연구로 수입대체 국산화 BIB Bag제품의 성공 은 2012년부터 한국코카콜라에 납품하면서 또 다른 수출상품으로 미국코카콜라를 겨냥하여, 제2의 성공 신화를 쓰고 있는 자랑스런 여성기업인입니다.
<과거 포상>
2013.5.16 중소기업인대회 대통령 표창
2012.12.31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
2010.7.7 국무총리 표창
2004.12.31 산업지원부장관 표창
<공적사항>
김금자대표는 식품포장재 제조 한 분야만 28년째 종사해 오고 있는 은근과 끈기의 중소기업인이자 현장 실무자 출신의 경영자입니다.
- 1986년 김금자대표는 지하소규모공장 에서 라면포장재, 아이스크림 포장재등을 생산하여 납품하
일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 플라포 '의 아이스크림 포장방식이 본 공장에서 대동한
것임을 아는 분은 많지 않지만 김금자대표를 통해 국내최초 자동화생산 이 가능하게 된 사실을 아는
분은 더욱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 오로지 수동방식의 생산설비에 의존하다보니 많은 인력투입과 불균일한 품질등의 문제가 있었
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산해왔지만 개선과 효율 에 바탕을 둔 김금자대표는 생산설비부터 과감히
개선, 개발하여 당시 발주처인 농심에 혁신적인 원가절감으로 돌렸고 이후 이러한 플라포 자동생산
설비를 김금자대표로부터 배워 여타의 납품사 및 대기업 생산라인까지 교체한 사례가 증명하듯
김금자대표는 생산단계부터 고객 만족을 위해 항상 개선과 효율 에 대한 부분에 역점을 두기 시작
했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불편하거나 비합리적인 것이 있다면 반드시 고쳐야 함이 당연하다고 믿
는 철학은 고스란히 사업에도 반영이 되었고, 2002년 천억원 해외수주 라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내
었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EPC(extruded pattern coated)형 진공백 수출계약
-현존하는 최고의 식품포장기술은 단연 진공포장기술입니다. 1995년 미국에서 개발된 가정용 진공포
장기는 2001년도에만 150만대가 판매될 정도로 히트상품이었지만, 당시 진공포장전용백은 제조공정
상 불가피하게 미세한 구멍(핀홀)이 발생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김금자대표는 주부로서도 이러한 고객불만사항을 극복하기 위한 많은 아이디어 상상을 하기도 했지만
관련사업의 기업인으로서도 연구와 투자와 고민을 당연히 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엠보형 진공백의 단
점을 극복한 신제품을 개발하게 된 동기도 되었습니다.
1999년부터 본 제품을 신규개발하기 위해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투자는 이루어졌으며 회사의 재정은
극도로 나빠졌지만 밀어 부칠 땐 강하게 밀고 나가는 소신으로 2001년 드디어 3년만에 톨팩 고유의
생산기법인 EPC형 진공백을 성공시키게 된 것입니다.
EPC형 진공포장백은 진공필름을 생산하면서 동시에 에어채널을 생성하고 그 에어채널 외면에 필름
을 한 장 덧 입혀 동시에 EPC필름원단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개발 되었고 이러한 제조공법의 가정
용진공포장백은 기존제품의 핀홀 문제를 100% 극복한 방식입니다.
지금 전세계 시장에서 쓰여 지는 미국제품 FoodSaver 가정용진공포장기용 전용진공백은
100% (주)톨팩 김금자대표의 노력과 눈물과 땀으로 만들어 낸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쓰고 있습
니다.
글로벌브랜드와의 수출공급계약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출신장으로 만들어 가고 향후 예측되는 국
쟁에서 우위를 지키기 위해 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품질경쟁력을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ISO9001, ISO14001인증, RoHS유럽규격, PSE일본규격, CE 규격등을 획득하였고
2006년 국내최초로 식품진공기술연구소 를 설립하여 발전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세계일류상품
으로서의 입지를 만드는 노력을 함과 동시에 경영혁신활동도 전개하여 벤처기업인증, 기술혁
신행중소기업인증, 경영혁신형중소기업인증, INNO-BIZ기업인증,경영혁신기
업 등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물로 2007년 (주)톨팩은 세계일류상품 과 기업에
선정되었고, 8년 연속 선정 이 되는 쾌거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주)톨팩은 조만간 전세계에 불고있는 친환경사업이며 웰빙사업의 대표적 소재인 BIB 사업 에
100% 국산화 를 이루었으며 세계일류제품 으로 수출신장의 획기적인 성공신화 를 쓰게 될 것입니다.

2) ()인사동비숍 - 신세진 대표 : 환경친화경영상

- 신세진 대표는 2004년 이래 (주)인사동비숍의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천연비누 등 각종 천연재료를 이용한 친환경 생활용품을 제조하여 세계여성발명대회 금상 등 국내외 각종 상을 수상하였을 뿐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제품 홍보와 환경보호 교육에도 앞장서고 있는 대표적인 친환경 여성기업인임.
- 대학연구소 및 타 기업과 연계하여 어류부산물을 이용한 가공제품 연구를 통해 부산물이나 오일 폐기물을 재활용한 친환경 제품을 실용화하는 연구와 수산가공 부산물 활용 네트워크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7년 이래 현재까지 연 3,000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료 공개강좌 등을 통해 친환경 제품의 홍보와 환경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업체 기본현황						
번호	과목	내용				
①	사업체명 [법인]	(주)인사동비숍				
	현 주소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122, 2층 (성북프라자빌딩, 하나은행)				
	사업자등록번호	214-88-73454				
①	사업체명 [개인]	인사동비숍				
	현 주소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39 (동소문동4가)				
	사업자등록번호	209-11-77290				
①	사업체명 [개인]	인사동비숍				
	현 주소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57 상갈러리 1층				
	사업자등록번호	416-09-93819				
②	대표자 성명	신세진				
	대표자 번호[연락처]	010-6274-2283				
③	기업소유 형태	소유주 성별 : 남(), 여(○)				
		경영주 성별 : 남(), 여(○)				
④	주생산품명	천연화장품, 천연비누, 친환경 한옥황토체험관 조성				
⑤	종업원수[상시근로자]	2010(3)명, 2011(4)명, 2012(6)명, 2013(12)명				
⑥	설립연도	개인사업자 ; 2004년 / 법인사업자 2011년				
⑦	매출액[단위: 백만 원]	내수	2010(), 2011(), 2012(400), 2013(1300)			
		수출	2010(), 2011(), 2012(), 2013()			
	순이익[단위: 백만 원]	2010(), 2011(), 2012(30), 2013(100)				
⑧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2010(%), 2011(%), 2012(15%), 2013(20%)				
⑨	전문인력 보유현황 (직종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무직	명	명	명	2명
		생산기능직	명	명	명	8명
		연구기술직	명	명	명	2명

<공적요약>	
-1994년 ~2004 중외제약 의약외품 및 화장품 연구,마케팅팀 근무 -2004년 현재 (주)인사동비습 대표이사운영 - 2005년 천연비누제조사 자격증 취득 - 2008년 한국 아로마전문가협회 아로마테라피스트 전문가 1급 - 2008년 제14회 여성발명우수사례 당선 - 2008년 현재 한국어성발명협회 여성발명창의교실 실습전담강사 - 2008년 근대황실공예문화협회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 작품출품 - 2009년 세계여성발명대회 본선 금상 동상 수상(천연제품) - 2009년 세계여성발명대회 본선 동상 수상(천연제품) - 2009년 세계여성발명대회 대회장 특별상 수상(천연제품) - 2009년 ‘환희2’-행보한 여성발명가 10인의 인생과 발명이야기 출간 - 2012년 여성발명경진대회 여성가족부 장관상 - 2013년 다기능성 세안용 타올장갑 특허출원 - 2013년 제7회 한미여성리더십세미나 참가 - 2013년 제 2회 문화예술명인 수제전통비누 명인 인증 “디지털시대 일일이 모든 공정을 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매우 비경제적인 활동이 할지는 모르지만 100%천연재료 100% 핸드메이드의 가치를 알아주는 고객이 있다면 한국 고유문화 와 함께 세계로 알려지는 천연화장품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	
환경오염의 주범인 합성 계면활성제의 피해를 알리자. 제약회사 근무 당시 알게된 여러 화학제품들과 계면활성제 제품들을 알게 되면서 이러한 제품들이 물에 분해되지 않고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이란걸 알게 되었고, 환경과 피부에 자극이 없으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에게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게 되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 천연재료를 이 용하여 생활용품들을 만드는 방법등을 연구, 기술화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물에 100% 생분해 되면서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고 오히려 환경에 도움이 되는 제품생산을 하게 되었다.	
단순히 회사에서 제품을 생산에서 알리는 것에 국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방법들을 일반인 들이 쉽고 간편하게 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강의를 시작하였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연간 3,000 명에 달하는 주부 및 학생, 여성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생분해되는 제품을 사용하고 화학제품이나 합성 계면활성제의 사용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리고 있다.	
대학연구소 및 타 기업과 연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어류부산물을 이용한 가공제품 을 연구하는 과제에도 적극 참여하여 부산물이나 오일 폐기물등을 재활용하여 제조되는 친환경 제품을 연구하고 생산하는 과정을 연구중이며, 친환경 제품을 만들고 알리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고부가원료 생산을 위한 수산가공 부산물 활용 네트워크사업’	
지역주민들과도 무료 공개강좌를 통해 일반적으로 집에서 쉽게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들을 알리고 합성 세제 및 화학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들을 알리려고 노력중이다.	
영유아 천연제품“하이맘 베이비케어 7종” 개발공급 ‘하이맘 베이비케어’ 제품은 천연유래의 식물 혼합 추출물 성분인 피토올리고,피토피TF, 피톤치드 등과 유효성분인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천연유래 아로마에센셜오일 등이 함유돼 거칠어지고 지친 피부의 진정과 보습에 도움을 주는 친환경 천연제품군이다 특히 피부자극테스트를 통해 안정성을 유지했으며, 파라벤류방부제, 인공색소, 탈크, 등 유해물질이 없어 아기 피부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피부진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편백수와 편백오일을 함유한 기저귀미스트, 엉덩이 크림 등 7종으로 연약한 아기 엉덩이의 피부진정 효과가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3) ()파인피누스 - 송영심 대표 : 사회공헌경영상

- 송영심 대표는 1998년, 15년간의 유통경험을 살려 유통분야에 진출한 이래 2006년 (주)파인피누스를 창업하여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매출확대를 통해 제2의 도약을 이룬 여성기업인일 뿐 아니라 각종 사회복지단체 지원과 장애인협회 활동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온 공로가 인정됨.
- 인제요양원, 부산 장애인배드민턴협회, 한국다문화연대 등에 수년간에 걸쳐 사회기부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 사회에서 외로운 장애인을 위한 (부산)강서구 배드민턴 장애인협회장으로 장애인권익 보호에 적극 활동하고 있음.
- 또한 (주)파인피누스의 임직원들은 (사)한국다문화연대 등 사회소수자 권익보호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행사의 진행요원과 차량지원 등 봉사참여 후원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업체 기본현황						
번호	과목	내용				
①	사업체명	주식회사 파인피누스				
	현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왕십리로 403				
	사업자등록번호	110 - 81 -79536				
②	대표자 성명	송 영 심				
	대표자 번호(연락처)	02) 2233 - 6202				
③	기업소유 형태	소유주 성별 : 남(), 여(o)				
		경영주 성별 : 남(), 여(0)				
④	주생산품명	생활용품, 위생용품, 안전용품				
⑤	종업원수(상시근로자)	2010(37)명, 2011(39)명, 2012(41)명, 2013(32)명				
⑥	설립연도	1998년도				
⑦	매출액(단위: 백만 원)	내수	2010(7,409), 2011(7,514), 2012(8,554), 2013(9,324)			
		수출	2010(), 2011(), 2012(), 2013()			
	순이익(단위: 백만 원)	2010(150), 2011(298), 2012(291), 2013(354)				
⑧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2010(1.2%), 2011(1.6%), 2012(1.8%), 2013(1.9%)				
⑨	전문인력 보유현황 (직종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무직	14명	13명	13명	13명
		생 산기 능 직	20명	23명	25명	16명
		연구기술직	3명	3명	3명	3명

<공적요약>	
1998년, 15년간의 유통경험으로 스미트인더스트리를 창업하여 선진유통이 국내에 태동하는 시기와 맞물려 E마트에 생활용품을 공급하게 되었음.	
특히,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세계적 기업인 독일 BASF의 멜라민품을 첫 런칭하여 새로운 청소 문화에 이바지하였음.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매출확대를 위해 INNO-BIZ(기술혁신형 중소기업)와 벤처기업(기술평가 보증 기업)을 획득하여 강한 중소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2006년 국내 대형할인점의 합종연횡에 따라 (주)에라토를 설립하여 급변하는 유통흐름에 빠르게 대처하였고 그 후 정제되는 OFF-Line 유통시장에 위생안전용품을 개발하여 (주)파인피누스를 창업하여 제2의 도약을 하고 있음.	
이런 3개 회사의 경영과 영업일선에서의 노력과 매진은 물론 인제요양원, 부산 장애인배드민턴 협회, 한국다문화연대 등에 사회기부를 수년간 이어오고 있으며 반려자이며 계열사 사장인 문환업 부군 또한 사회에서 외로운 장애인들을 위한 (부산)강서구 배드민턴 장애인협회장으로서 자택內 배드민턴 시설을 두고 장애인들을 위한 배드민턴 교실을 운영중에 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해 현대사회에서의 소외가 심화되어 갈수록 필요한 것은 다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기업경영과도 일맥상통하다는 지론으로 직원들에게도 근로의 기쁨이외에 봉사의 기쁨 또한 심어주는 타의 모범을 실천하고 있다.	
1. 종업원들의 자원봉사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소수자가 처한 현실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논의와 대안을 창출하고 더불어 한민족과 재외동포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설립된 (사)한국다문화연대와 부산시 장애인 배드민턴 협회를 통해 각종 프로그램 행사의 진행요원 및 차량지원으로 적극 봉사참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2. 지역사회 문화 활동 지원과 소외계층의 기부활동	
대구소재의 사단복지법인인 인제요양원은 심신장애아동을 보호하여 잠재능력 개발을 돕는 복지법인으로 종종 장애인들의 재활사업 및 바자회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배드민턴을 통해 자긍심 향상과 신체재활을 통한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 생활단체의 일원으로 매년 기부를 실천하며 각종대회 행사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Classic의 대중화와 친숙함을 목적으로 아름다운 Classic 선율을 문화예술 취약지역과 소외계층이 더불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심신의 안락함을 전달하고자 설립된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후원함으로써 다양한 지역사회 문화 활동에도 봉사실천을 하고 있음.	
3. 새로운 시장을 개척	
10여년간의 BIG3 대형마트에 PB(E마트,롯데)제품과 “Clean-i”인 자사 brand로 청소용품, 침장용품을 제조, 공급하는 Main회사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나 국내시장 위축과 포화상태의 매장수로 매출의 한계에 직면할 것을 예측하여 식품업체와 MRO를 통한 위생, 안전용품을 개발하여 삼성, 신세계, 한화, 현대 등의 국내 대형급식업체와 SPC그룹 전 계열사 등의 식품업체로 납품을 하고 있으며 특히, Non-slip의 불모지인 국내에 미끄럼방지 신발을 개발하여 큰 호응을 받고 있음.	
4. 연구개발을 위한 노력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멜라민품이라는 외국제품의 수입대체를 위한 국산화에 착수하여 3년여간 실험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하여 proto 생산에 성공을 하였음. 그러나 완성품 개발에 따른 과도한 설비투자와 고급 인력수급이라는 중소기업의 한계에 부딪히며 KOSPI 상장회사인 동성그룹에 기술을 이전 현재 동성화학에서 제품개발을 완성, 당사가 국내총판계약을 체결한 상태임.	
5. 개발상품의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자사 브랜드 가치제고와 마케팅, 우수성을 위해 2000년부터 실용신안 13개, 의장등록 3개, 상표등록 3개, 특허 3개로 자사상품 및 Brand보호와 개발에 매진하고 있음.	

4) ()테르텐 - 이영 대표 : 인재경영상

- (주)테르텐은 2000년 회사 설립이래 전체 종업원의 2/3에 해당하는 약 20명 규모의 기술연구소를 통해 DRM과 화면정보유출방지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우수인재의 연구개발역량에 기반한 기술집약적인 제품을 생산을 통해 2006년 'Asia 유망 100대 기업', 2007년 'Global 유망 100대 기업' 선정 및 장영실상을 수상한바 있는 기술선도 중견기업임
- (주)테르텐의 이영 대표는 직원들이 적극적인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재능있는 인재의 채용과 교육 및 자기개발 지원, 회사내 의사소통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우수여성벤처기업인, 여성무역인력 유공자 등을 수상하였고, 한국여성벤처협회 수석부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음.
- (주)테르텐의 종업원은 입사 후에 핵심 직무능력강화교육을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담당 업무에 특화된 교육과정에 참가할 수 있도록 회사차원에서 적극 지원하여 역량있는 직원 양성에 힘쓰고 있음

업체 기본현황						
번호	과목	내용				
①	사업체명	(주)테르텐				
	현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88 20층 (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 1차)				
	사업자등록번호	120-86-07238				
②	대표자 성명	이 영				
	대표자 번호(연락처)	010-9100-7859				
③	기업소유 형태	소유주 성별 : 남(), 여(√)				
		경영주 성별 : 남(), 여(√)				
④	주생산품명	DRM / DLP				
⑤	종업원수(상시근로자)	2010(25)명, 2011(25)명, 2012(23)명, 2013(32)명				
⑥	설립연도	2000년 07월 07일				
⑦	매출액(단위: 백만 원)	내수	2010(1,860), 2011(1,314), 2012(1,699), 2013(2,169)			
		수출	2010(160), 2011(214), 2012(94), 2013(70)			
	순이익(단위: 백만 원)	2010(372), 2011(24), 2012(132), 2013(75)				
⑧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2010(5.72%), 2011(12.85%), 2012(13.63%), 2013(7.62%)				
⑨	전문인력 보유현황 (직종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무직	11명	11명	2명	2명
		생산기능직	명	명	명	명
		연구기술직	14명	14명	21명	28명

<공적요약>

테르텐이란 티베트어로 ‘인류를 구원할 보물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디지털 콘텐츠를 보호함으로써 세계를 구원한다는 사명 하에 멀티미디어 DRM의 개발 및 판매를 시작으로 하여 PC, VDI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에서의 정보유출방지 시스템을 개발해 왔으며, 최근 높아지는 국내외 기업들의 모바일 App 보안에 대한 Needs에 맞춘 제품을 새롭게 개발하는 등 급변하는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다양한 보안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테르텐은 2001년 10월 기술 연구소를 설립하여 현재는 약 20여명(전체 인원의 2/3)의 연구원이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산학연 활동을 통하여 DRM과 화면 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요 기술의 보호를 위해 국내에서는 총 10개를 특허 출원하여 8개의 특허를 획득, 2개는 특허출원 중에 있으며 미국과 일본, 중국에도 특허를 등록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력 상품인 MAM, Webcube, ContentWall, PMPWall 제품은 모두 GS 인증을 획득하여 테르텐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하기도 하였습니다.

테르텐의 이영 대표이사는 활발한 연구 활동과 사업화를 통해 꾸준히 기업을 성장 시켜왔으며, 개발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신기술보유기업부문’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았고, 전경련 등 민간경제 단체로부터 기술 혁신적인 기업으로 장래가 유망한 중소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아 ‘우수벤처기업’으로 인증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만 수여하는 기술상으로 권위 있는 ‘장영실상’을 2007년에 수상하였습니다. 동시에 해외에서는 매년 연말에 세계적으로 우수하고 기술 선도적이며 사업성이 유망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순위를 매기는 Red Herring사가 2006년에 아시아에서 유망한 100대기업의 하나로 ‘Asia 2006 100대 기업’에 테르텐을 선정하였고, 그 이듬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망한 100대기업의 하나로 “Global 2007 100대 기업”에 테르텐을 다시 한 번 선정하였습니다.

국내외에서의 성과를 통해 국내 IT 보안 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있음을 입증하며 국위를 선양하기도 하였으며, 2009년 한국여성벤처협회에서 대한민국의 뛰어난 여성 기업인으로 선정 되어 ‘우수여성벤처기업인’ 특허청장상을 수상하였고, 그해 무역의 날에 무역에 많은 공헌을 한 여성 기업인에 수여하는 상인 ‘여성무역인력유공자’ 국무총리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여성 기업인으로 활발한 연구 개발 및 사업을 전개하여 국가 IT발전에 이바지 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영 대표이사는 “한국여성벤처협회”의 수석 부회장으로 봉사 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우리나라 여성 벤처 기업의 발전을 위한 양적·질적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테르텐 제품의 기술력 향상과 사업 성장이 있기까지는 내부적으로 테르텐의 인재 경영 전략이 뒷받침되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테르텐에서 일하게 될 직원을 채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확실적인 스펙 위주의 채용 방식에서 벗어나 인성과 실력, 잠재 가능성으로 평가하는 ‘열린 채용’을 통하여 직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르텐은 병역 특례 업체로 지정 되어 있으며 인턴제를 실시하여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린 채용을 통해 테르텐에서 희망하는 인재는 바로 창의와 탐구 정신, 열정과 도전 정신, 회사의 주인이라는 책임감으로 업무에 임하고 구성원간의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사람입니다. 테르텐의 ‘주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입사 후에는 핵심 직무 능력 강화 교육을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담당 업무에 특화된 교육 과정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역량 있는 임직원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테르텐에서는 부서 내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의사소통을 강조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원들과 경영자간의 거리를 줄임으로서 서로 간의 이견을 좁히는 등 양방향 소통을 통해 직원들 한명 한명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제 예로 매주 아이디어 회의를 시행해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회의에 참가하여 각자가 자신의 소리를 내어 다른 직원에게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회사에서는 포상을 통해 해당 직원을 격려하는 등 이런 시도를 통한 새로운 발상들이 회사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었습니다.